WORLD ECONOMY UPDATE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 ISSN 1976-0515 | Vol. 9 | No. 42 | 2009년 12월 24일

2010년 세계경제 전망: 세계지역경제

세계지역연구센터

I. 선진경제권	II. 신흥시장권	III. 개도국경제권
1. 미국	1. 중국	1. 동남아
2. 일본	2. 인도	2. 중남미
3. EU	3. 러시아	3. 중동
4. 대양주	4. 브라질	4. 중앙아시아
	5. 멕시코	5. 아프리카

주 요 내 용

▶ 각국의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으로 2009년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성장세가 전기대비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으며, 신흥시장 및 개도권 경제는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각국의 정책공조 및 선제적인 확장정책으로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수출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고용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재정여력이 소진되어 일부 선진국에서 더블딥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0년 세계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비정상적 조치의 회수는 2010년 상반기에,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단, 중국의 금융부문 출구전략이 상반기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국의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의 시행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임.

▶ 선진경제권: 완만한 회복세 전망

- 2010년 미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2~2.5%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위축, 주택시장 회복 둔화 및 재정적자의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경제는 2010년 1.1%의 저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상반기에는 경기부진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EU 및 유로존은 0.7% 내외의 미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2%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신흥시장권: 중국과 인도의 주도로 경기회복을 견인

- 2010년 중국과 인도는 각각 10%와 6%의 고성장을 달성하여 신흥경제권의 경기회복을 선도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와 브라질, 멕시코는 1.6~4%의 상대적으로 약한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경제권: 경기회복세와 국가간 성장격차 확대

- 동남아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경제는 페루, 칠레, 브라질의 고성장이 전망되나 전체적으로 2% 내외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간 성장격차가 커질 전망임.

- 2010년 중동 경제는 두바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4% 내외의 안정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임.

- 7%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임.

- 글로벌 경제위기로 2% 내외의 저성장을 겪은 아프리카는 2010년 수출시장의 확대로 4% 내외의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I. 선진경제권

1. 미국

가. 경제 동향

■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나 회복세의 지속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 2009년 3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2.8%(잠정치)임. 성장의 직접적 원인은 개인소비지출 · 재고투자 · 수출 · 비거주투자 등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1. 실질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대비연율, %)

	2008년	2009년		
		1/4	2/4	3/4
GDP	0.4	-6.4	-0.7	2.8
소비지출	-0.2	0.6	-0.9	2.9
비거주투자	1.6	-39.2	-9.6	-4.1
거주투자	-22.9	-38.2	-23.3	19.5
수출	5.4	-29.9	-4.1	17.0
수입	-3.2	-36.4	-14.7	20.8
정부지출	3.1	-2.6	6.7	3.1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BEA)(2009.11.24).

■ 미국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및 노후자동차교체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등의 영향으로 소비는 회복단계에 진입함.

- 개인소비지출(PCE)이 2.9% 증가하여 200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내구재생산 증가율이 20.1%에 달해 200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음.

- 고용상황의 조기 개선이 불투명하여 소비지출 회복세에는 한계가 있고, 자동차관련 지출을 제외하는 경우 내구재의 성장기여도도 높지 않아 경기회복이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

■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3분기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다시 확대될 전망임.

- 2분기에는 수입수요 급감으로 인해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988억 달러로 축소,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증가함.

- 그러나 3분기에는 수입증가율(20.8%)이 수출증가율(17.0%)을 상회하면서, 순수출은 연속 3분기 플러스 성장기여도에서 마이너스 요인(순수출 성장기여도 -0.83 %포인트)으로 반전됨.

※ 향후 재고가 감소하고 생산이 확대되면서 축소된 경상수지 적자가 점진적으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왔으나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됨.

- 경기침체에 따라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및 유동성공급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가격 상승 및 안정세 지속

- 미 20대 도시기준 9월 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는 146.51(전월대비 0.3% 상승)로 5개월 연속 상승함.

그림 1. 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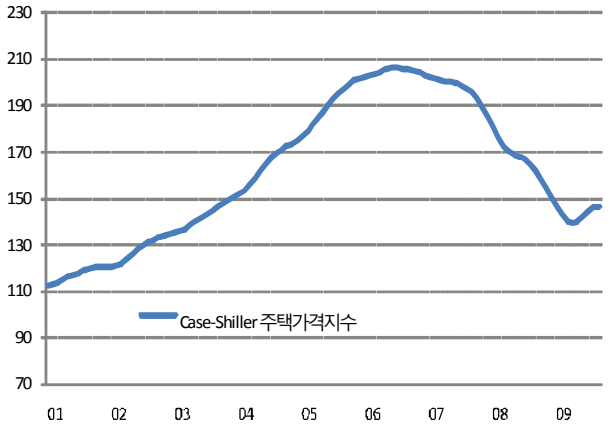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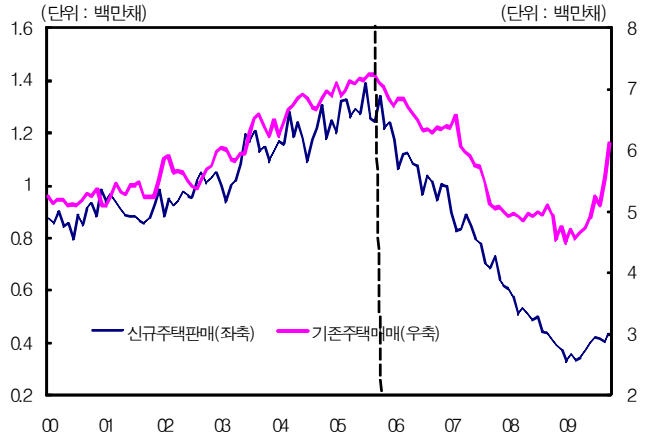


그림 2 신규 및 기존 주택판매지수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Case-Shiller(2009.11).

- 10월 신규주택판매는 43만 채로 전월대비 6.2% 상승, 기존주택판매는 연 610만 채로 전월대비 10.1% 상승을 기록함.

○ 이와 같은 주택시장 상황의 개선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액공제(8,000달러)와 연준의 모기지증권(MBS) 등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책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11월 말 종료예정이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년 4월 30일까지 확대·연장하는 법안[1]이 의회를 통과, 주택시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압류주택의 매물증가로 주택재고 급증 및 매물압박과 함께 모기지 연체가 가중되는 악순환도 지속됨.

- 2009년 3분기 현재 전체 담보주택의 압류비율은 2007년 말보다 2배 이상 상승한 4.47%를 나타냄.

○ 서브프라임 담보주택의 압류 비율은 2007년 말 8.65%에서 2009년 2/4분기 15.35%를 기록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 프라임 담보주택도 0.96%에서 3.20%로 상승함.

표 2. 주택차압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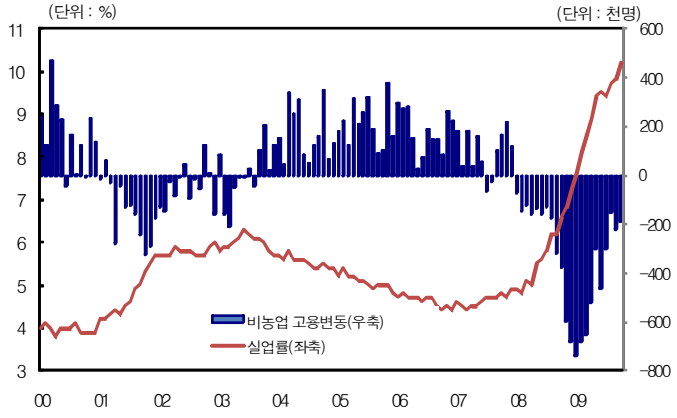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1/4	2/4	3/4
전체 주택	1.19	2.04	3.30	3.85	4.30	4.47
프라임	0.50	0.96	1.88	2.49	3.00	3.20
서브프라임	4.53	8.65	13.71	14.34	15.05	15.35

주: 각년도 기말 기준.
자료: Bloomberg, Mortgage Bankers Association(2009.11).

■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감소세는 둔화됨.

- 2009년 1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전월(11.1만 명)대비 1.1만 명 감소(23개월 연속 감소)하여 2008년 1월 이후 약 731만 명의 고용이 감소함.

그림 3. 비농업부문 고용변동 및 실업률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200912).

○ 상기 추세는 2009년 1월 74.1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임.

- 11월 실업률이 10.0%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나, 급격한 고용감소 추세는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오바마 행정부의 2010년 경제정책은 現 경제위기의 조기 탈출 및 고용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테러와의 전쟁, 경기부양 집행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및 초저금리 정책 지속에 따라 추가로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은 제약이 있음.

- 또한 의료보험개혁 추진에 따른 정치적 갈등의 지속, 이에 따른 여타 정책 추진의 동력 상실, 11월 중간선거 등의 변수에 유의해야 함.

■ 우선 2009년의 주요과제인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됨.

- 오바마 정부가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의 2009년 내 상원통과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임(2009년 11월 7일 하원에서 기통과).

- 의료보험개혁 법안의 3대 쟁점은 정부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여부, 의료보험개혁 재원 마련방안, 고용주들의 근로자보험 가입 의무화 문제이며, 최종합의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심화 부담으로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2009년 2월부터 시행) 이외의 추가적 대규모 경기부양책 도입 가능성은 낮음.

○ 미 백악관(11월 13일)에 따르면 7,870억 달러 중 2,201억 달러(총 경기부양액 규모의 약 28%에 불과)가 집행됨.

- 향후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프간 전비 지출 증가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각각 11.2%, 10.4%에 이를 전망임.
- 미국의 정부세입은 OECD 평균(37.1%)보다 낮은 31.3%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1) 11월 5일 미 의회에서 동 법안(HR 3545법안)이 최종 승인되었고, 기존 장기거주자의 주택구입 및 세제혜택신청 소득구간 상향조정등의 신규 추가 혜택이 부여되어 주택시장 안정에 추가적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정부지출의 20%를 차지하는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점진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재정적자 대폭 확대는 미 국채에 대한 투자매력 감소,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성 저하, 달러가치 하락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시행이 중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나 추세성장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잔존하여 조기 시행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순 북경인터뷰에서 미국이 재정건전성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더블딥(double-dip)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재정부문 출구전략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2010년에 적극 추진할지 여부는 미지수임.

■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 추진

- 아직까지 금융개혁법안의 의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규제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총 5개 부문에 대한 주요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됨.

○ 이 방안의 5개 부문은 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 ②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 ③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④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배양 ⑤ 국제적 차원의 규제 마련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임.

※ 주요 쟁점은 금융기관 감독권한을 연준에 부여할지, 새롭게 신설되는 기관이 금융기관 감독업무를 담당할지 여부임.

■ 출구전략(금융 및 통화정책) 시행 논의 및 전망

- 금융정책 분야에서 미시적 출구전략은 2010년 2분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2010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확장정책이 지속될 전망임.

○ 모기지시장 안정을 위해 Fed가 GSE의 모기지 직접 구매, 소비자 및 중소기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ABS 구입 등을 실시함.

-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취해진 비전통적 금융조치(unconventional financial measure)들은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으로 전망됨.

- 11월 4일 FOMC 회의에서 MBS 매입(총 1조 2,500억 달러) 등 자산매입을 2010년 1분기까지 실시하기로 재확인함.

○ 통화정책에서의 출구전략 시행 압력은 2010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11월 4일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재의 0~0.25% 범위로 유지하기로 결정함(출구전략 유보).

○ Fed의 출구전략 추진시기 결정에는 고용시장 회복 여부, 물가상승 압력, 자산시장 버블 우려 등이 주요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공정무역(Fair Trade) 강화 전망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부터 공정무역을 중시하고 있는바, 이는 2009년에 추진하였던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과 같은 주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음.

○ 미 하원은 「청정에너지안보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을 의결(2009년 6월)하여 2020년부터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 규정을 포함시킴.

※ 그러나 상원안이 아직 합의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미지수임.

○ 또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을 발표함(9월 11일).

- 주요 무역이슈에 관해 민주당 내 진보주의자(liberal)의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반영되는 데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환경문제 해결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경제성장전략 추진

- 오바마 정부의 녹색경제성장전략은 재생에너지·청정 연료 개발 등 대체에너지 투자 확대와 에너지효율성 증대로 요약됨.

- 재생·대체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 되었으나, 미국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 의회 내 지지 기반확보 어려움으로 진전이 더딘 상황임.

다. 2010년 경제 전망

■ 2010년 미국경제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2~2.5% 저성장 전망

- 고용시장 악화, 상업용 모기지 부실 등에도 불구,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재정지출 효과 감소로 인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잔존함.

- 고용시장 조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에 따라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회복 지속이 불확실해 추세성장 회복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표 3. GDP 전망(2009~2011년)

(단위: %)

전망기관	2009년	2010년	2011년
IMF	-2.7	1.5	-
Global Insight	-2.5	2.2	2.9
EIU	-2.4	2.5	1.3
OECD	-2.5	2.5	2.8
평균	-2.5	2.2	2.3

자료: Global Insight (2009.11); EIU(2009.11); IMF(2009.11); OECD(2009.11).

■ 2010년에도 고용시장 위축, 주택시장 회복 둔화 가능성, 재정적자와 같은 불안요인이 혼재함.

- 적시고용 관행의 확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 등 고용개선 지연 요인과 함께 잠재 성장률도 낮아져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2010년 1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주택시장의 경우 2009년 1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증가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따른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 우려는 낮지만 중·소형 금융기관의 추가적 부실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백악관 OMB[2]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5,020억 달러로 전망됨(2009년 회계연도 실적에 비해 850억 달러 확대).

■ 2009년 미국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전망 및 2010년 경기회복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점진적 확대 전망

- 2009년 달러화 약세 및 해외경기 회복에 따른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해외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2008년 대비 (7,061억 달러, GDP 대비 약 4.9%) 2009년 경상수지 적자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약 4,500억 달러, GDP 대비 약 3.1%).

- 경기회복에 따른 상품수입 증대, 오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0년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에 비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연구진

이준규 미주팀장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고희채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2)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기획예산 담당 부처).

2. 일본

가. 경제 동향

■ 2009년에도 여전히 경기부진 지속

- 일본경제는 2007년 4/4분기를 정점으로 이후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됨. 여기에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 경기침체가 더해지면서 2008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전후 최악의 수준인 -3.7%(전년도대비)를 기록함.

- 2009년 2/4분기(4~6월) 이후 전기대비로는 점차 경기회복세를 시현(2/4분기 +0.7%, 3/4분기 +0.3%)하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상당 폭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됨(2/4분기 -5.8%, 3/4분기 -5.1%).

■ 2009년 2/4~3/4분기 경제지표별 동향

-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잇따른 경제위기대책에 따라 2/4분기 이후 민간소비는 소폭의 회복세가 지속됨.

- 최근 일본경제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수출부진이 회복세로 전환됨. 이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기인함.

- 반면 민간 주택투자와 기업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됨.

표 1. 일본경제의 최근 동향

(단위: 전기대비 %)

	2007 실적	2008 실적	2009			2009 예측
			1~3월	4~6월	7~9월	
실질GDP	1.8	-3.7	-3.1	0.7	0.3	-2.7
민간소비	1.4	-1.8	-1.2	1.2	0.9	0.4
주택투자	-13.5	-3.7	-6.4	-9.4	-7.9	-18.1
기업설비투자	1.3	-6.8	-8.4	-4.6	-2.8	-13.1
정부소비	1.5	-0.1	0.7	0.3	-0.1	1.1
공적고정자본	-6.4	-6.6	3.7	6.3	-1.6	10.7
수출	9.2	-10.4	-21.3	6.5	6.5	-12.8
수입	1.8	-4.4	-15.0	-3.4	3.3	-11.0

주: 1) 연간 단위는 회계연도(당해연도 4월~차년도 3월) 기준임.
2) 2009년도 예측치는 일본 25개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를 평균한 것임.
자료: 內閣府(2009.12.9); 日本政策金融公庫(2009.12.4).

■ 2009년도 전체로는 -2.7% 성장 전망

- 2009년도 일본경제는 전년도(-3.7%)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된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 전망치는 2009년 11월 16일 내각부의 3/4분기 GDP통계(1차 속보치) 발표 이후 25개 민간연구소가 11월 말까지 발표한 2009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종합(평균)한 것임.

○ 그러나 12월 9일에 발표된 3/4분기 GDP통계 2차 속보치에서 전기대비 3/4분기 성장률이 대폭 하향조정(1차 1.2% → 2차 0.3%)됨에 따라 향후 2009년도 전체에 대한 전망치 역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 25개 민간경제연구소는 일본경제가 2009년 1/4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함.

○ 최근 생산·수출·소비 등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① 작년 가을 이후 세계적인 경기후퇴에 대응한 급격한 생산·재고 조정의 일단락 ②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회복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 지속 ③ 일본정부의 광범위한 경제대책의 효과 발휘 등이 지적됨.

○ 단, 2010년 초까지 일본경제는 정부의 경제대책효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점, 자율적인 회복기제도 부족하다는 점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2009년 4/4분기와 2010년 1/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3%, 0.1% 정도의 성장을 예상; 경제기획협회 2009.12.8).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일본정부의 디플레 선언

- 지난 11월 20일 내각부는 「월례경제보고」에서 "물가동향을 종합해보면 완만한 디플레 상황에 있다"고 발표함.

○ 정부가 일본경제에 대해 디플레 상태를 인정한 것은 2006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임.

- 일본정부가 디플레를 선언한 배경에는 ① 최근 엔화 강세, 물가하락 악화의 지속에 따른 2010년 상반기 더블딥 우려 ② 내각에 대한 지지율 하락,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대비

등의 경제적 및 경제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또한 이번 디플레 선언은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채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책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음.

– 엔/달러 환율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강세 기조가 계속되면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됨.

○ 엔고는 기본적으로 약달러에 기인하는바, 그 배경에는 미국 연준(FRB)의 저금리정책 장기화 예상,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재정적자 팽창 우려, 오바마 정부의 약달러 용인(수출확대에 의한 고용창출 도모) 등의 요인이 있음.

○ 최근 정부와 일본은행은 급격한 엔고 진행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 추진과 외환시장 개입 등의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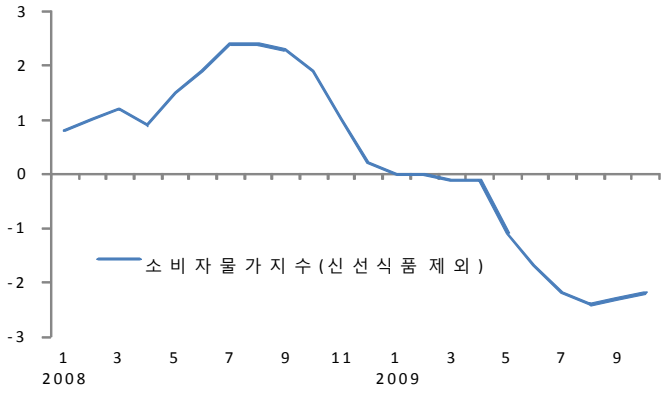
그림 1. 엔화 환율 추이

(단위: 엔)

자료: Bloomberg.

그림 2.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總務省.

–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국내수급의 악화를 배경으로 2009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함. 일본은행은 2011년도까지 이러한 하락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10월 30일 「경제·물가정세의 전망」).

○ 물가하락세는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고 임금수준을 끌어내려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물가하락을 방치하면 경기가 재차 악화(더블딥)될 것으로 우려하여 디플레를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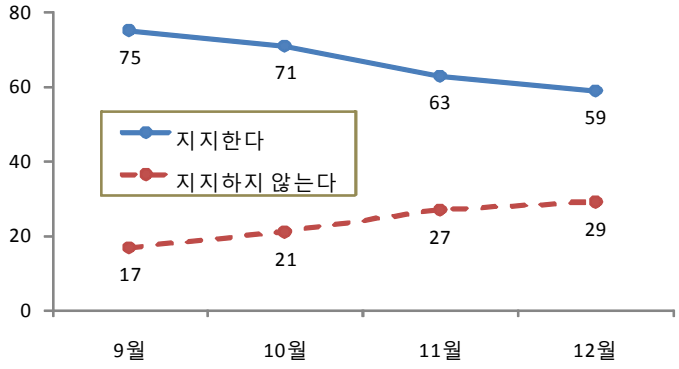
– 하토야마 신정부가 9월 출범한 이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12월 4~6일)에서 일본정부가 디플레와 엔고 등 현재의 경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8%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됨을 나타냄.

○ 2010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토야마 정권으로서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림 3.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

(단위: %)



자료: 読売新聞(2009.12.4).

■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책 도입

– 12월 1일 일본은행은 정부의 디플레 선언에 부응하는 형태로 10조 엔 규모의 추가 유동성 공급을 결정함.

○ 새로운 담보대출제도는 대출기간이 3개월이며, 금리는 정책금리와 같은 0.1%로 고정, 매주 1회 8,000억 엔 정도를 공급하여 3개월 후에는 약 10조 엔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임.

○ 이번 금융완화책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뿐 아니라 국채까지도 담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단기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번 조치로 일본의 단기금리가 하락하여 미·일 간 금리차가 재역전될 경우 엔화매도·달러매입 효과를 유발하여 엔고기조를 억제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대응책이 디플레 압력의 완화에 도움을 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음.

■ 하토야마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추진

- 12월 8일 일본정부는 긴급경제대책안을 마련하고 제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함.

○ 경제대책안은 총 사업비 24조 4,000억 엔 규모이며, 이 중 제2차 추경예산 규모는 7.2조 엔임.

○ 이에 대해 여론은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요구함.

다. 2010년 경제 전망

■ 2010년도에 1.1%의 저성장 전망

- 2010년도 일본경제는 25개 민간연구소 가운데 24개 기관에서 플러스 성장을 전망한 가운데 평균은 1.1% 성장(전년도대비)으로 나타났는바, 경기회복세의 체감은 전반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행 역시 2010년도 일본경제가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10월 30일「경제·물가정세의 전망」).

표 2. 일본 25개 민간연구소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도대비 %)

	2008년도	2009년도 예측	2010년도 예측
실질GDP	-3.7	-2.7	1.1
민간소비	-1.8	0.4	0.7
민간주택투자	-3.7	-18.1	-0.2
민간설비투자	-6.8	-13.1	2.3
정부소비	-0.1	1.1	0.8
공적고정자본	-6.6	10.7	-10.1
수출	-10.4	-12.8	9.0
수입	-4.4	-11.0	5.6

주: 예측치는 일본 25개 민간연구소의 전망치를 평균한 것임.
자료: 内閣府(2009.12.9); 日本政策金融公庫(2009.12.4).

■ 2010년도 상반기에는 경기감속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예상

- 상반기에는 정책효과의 견인력 약화, 공공사업비의 삭감에 의한 공적고정자본형성의 감소, 설비·고용 과잉에 따른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소폭 증가,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 지연에 연동된 수출의 완만한 회복 등에 의해 경기감속이 예상됨.

○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의한 수출확대, 아동수당 지급에 의한 개인소비 증가 등에 따라 성장세 시현이 전망됨.

- 실업률은 2010년도에 5.5%를 기록하여 과거 최악의 수준(2002년도 5.4%)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도 고용정세는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국내수급의 악화를 배경으로 2009년도 -1.5%, 2010년도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디플레 정착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우려됨.

■ 2010년에 엔화환율 변화에 의한 우리의 수출경쟁력 확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0년도 엔화환율은 2009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유지(달러당 93.1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화도 완만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다만, 2009년에는 일본의 수입급감에 따라 우리의 대일수출이 저조했으나, 2010년에는 일본의 수입이 회복되면서 대일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일본정부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질 경우 우리나라에의 유입 동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연구진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3. EU

가. 경제 동향

■ 2008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점차 회복세

- 2008년 하반기 이후 4분기 연속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EU경제는 2009년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함.

- 특히 유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3]은 2009년 2분기부터 2분기 연속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보임.

표 1. EU 및 주요 회원국의 실질GDP 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3/4	4/4	연간	1/4	2/4	3/4
EU 27	−0.5 (1.0)	−1.9 (−1.6)	0.8	−2.4 (−5.2)	−0.3 (−5.7)	0.3 (−4.2)
유로지역	−0.4 (0.7)	−1.9 (−1.8)	0.6	−2.4 (−5.3)	−0.2 (−5.7)	0.4 (−3.9)
독 일	−0.3 (1.4)	−2.4 (−1.7)	1.3	−3.5 (−6.4)	0.4 (−7.0)	0.7 (−4.7)
프랑스	−0.2 (0.5)	−1.5 (−1.8)	0.4	−1.4 (−3.3)	0.3 (−3.4)	0.3 (−2.1)
스페인	−0.6 (0.9)	−1.1 (−0.9)	0.9	−1.6 (−3.9)	−1.1 (−5.1)	−0.3 (−3.4)
영 국	−0.7 (0.7)	−1.8 (−1.1)	0.6	−2.5 (−4.9)	−0.6 (−6.2)	−0.3 (…)

주: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기준이며, ( ) 안은 전년동기대비, 비계절조정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민간소비와 투자는 위축되었으나 수출은 회복세

- 2008년 EU GDP의 57.3%, 유로지역 GDP의 56.4%를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부진이 2분기에 다소 완화되는 듯 했으나 유럽 전반의 주택가격 하락, 경기부양책의 일환인 자동차 보조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으로 3분기 들어 재차 위축됨.

- 2009년 1분기에 최저성장률을 나타낸 투자는 그 하락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10% 미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수출 역시 급감했으나 3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EU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3) 2/4분기와 3/4분기의 성장률은 독일 0.4%, 0.7%, 프랑스 0.3%, 0.3%, 폴란드 0.5%, 0.5%, 슬로베니아 0.6%, 1.0%, 슬로바키아 1.1%, 1.6%, 스웨덴 0.3%, 0.2%로 나타남.

표 2. 부문별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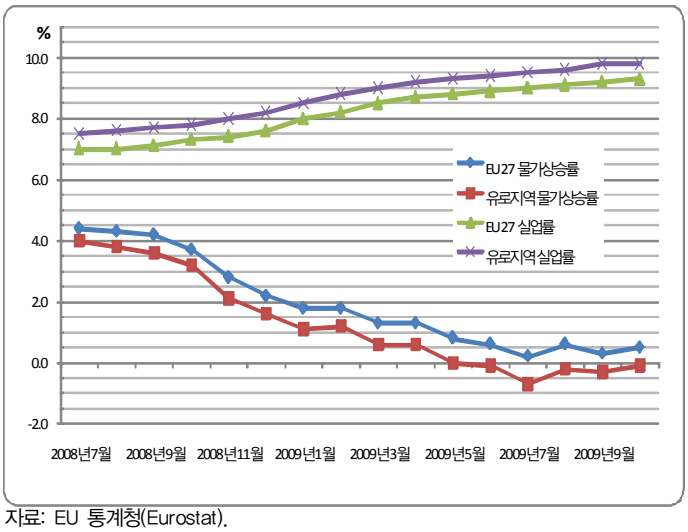
구 분	EU 27				유로지역			
	2008 4/4	2009 1/4	2009 2/4	2009 3/4	2008 4/4	2009 1/4	2009 2/4	2009 3/4
민간소비	−0.7 (0.7)	−0.9 (−1.9)	−0.1 (−1.8)	−0.2 (−1.9)	−0.5 (−0.7)	−0.5 (−1.3)	0.0 (−0.9)	−0.2 (−1.1)
정부소비	0.7 (2.5)	−0.3 (1.7)	0.6 (1.5)	0.5 (1.5)	0.6 (2.4)	0.6 (2.5)	0.6 (2.4)	0.5 (2.5)
총 투 자	−3.5 (−5.8)	−5.4 (−11.0)	−2.5 (−12.5)	−0.5 (−11.4)	−3.8 (−5.5)	−4.9 (−10.9)	−1.7 (−11.3)	−0.4 (−10.4)
수 출	−6.6 (6.2)	−8.1 (−15.7)	−1.4 (−16.6)	2.4 (−13.4)	−7.2 (−6.9)	−8.7 (−16.8)	−1.3 (−17.4)	2.9 (−13.9)
수 입	−5.1 (−4.5)	−7.8 (−13.6)	−2.9 (−15.4)	2.4 (−12.9)	−4.8 (−4.1)	−7.4 (−12.8)	−2.9 (−14.4)	2.6 (−12.1)
GDP	−1.9 (−1.8)	−2.4 (−4.9)	−0.3 (−5.0)	−0.3 (−4.3)	−1.9 (−1.8)	−2.4 (−5.0)	−0.2 (−4.8)	0.4 (−4.1)

주: 분기별 증가율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기준이며, ( ) 안은 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 기준임.
자료: EU 통계청(Eurostat).

■ 물가상승률의 둔화 및 실업률의 지속적 상승

- 2008년 7월 EU와 유로지역은 각각 4.4%와 4.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하향세가 나타나며, 2009년 5월 이후에는 EU는 1% 이하, 유로지역은 0% 이하로 떨어짐.

그림 1. EU 27과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



자료: EU 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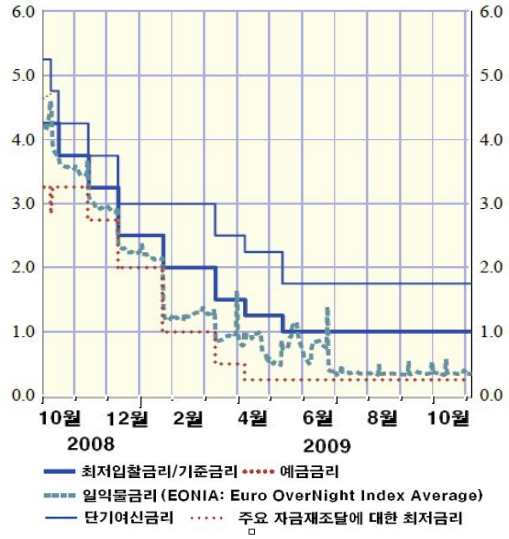
- 경기침체와 기업투자 위축으로 EU 및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여 2009년 3분기에는 평균 9%를 상회했고 2009년 10월에 집계된 실업자 수는 EU와 유로지역에서 각각 2,251만 명과 1,557만 명에 달함.

■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동결

- ECB는 2008년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으

나 2009년 2분기부터 GDP 성장률의 개선 등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부터 1.0%수준을 유지함.

그림 2. ECB 기준금리 및 기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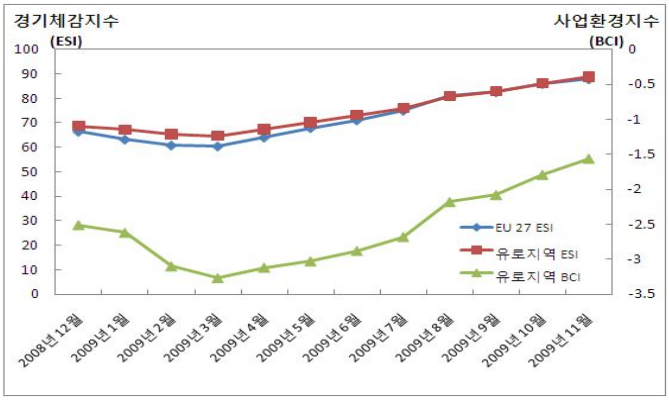
자료: 유럽중앙은행.

- 영란은행 또한 5.75%이던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 인하하여 현재 0.5%로 유지하고 있음.

■ 경기체감지수 및 사업환경지수[4]의 회복세

- 2009년 3월 60.4, 64.6로 유로화 도입 이후 최저로 떨어졌던 EU 및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는 하반기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지역의 사업환경지수 역시 최저수준인 -2.62를 기록한 이후 호전되고 있음.

그림 3. 경기체감지수(ESI) 및 사업환경지수(BCI)



자료: EU 통계청(Eurostat); European Commission.

4) 경기체감지수(Economic Sentiment Indicator)와 사업환경지수(Business Climate Indicator)는 EU경제금융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이 기업체, 소비자,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및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각 100과 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클 경우 경기상승을 의미함.

나. 정책현황 및 방향

■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건전화의 필요성 대두

- 2009~10년 기간 동안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EU 총 GDP의 1.9%에 달하며,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한 추가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EU 총 GDP의 4.4%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융권 안정을 위한 채권보증 등 재정적자로 기록되지 않는 지원책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글로벌 위기로 인한 EU 회원국의 재정지원책은 EU 총 GDP의 16.5%에 달함.

- 세수의 감소와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으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2008년 GDP 대비 2.3%에서 2009년에는 7%, 2010년에는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EU 27개국 중 26개국이 「안정 및 성장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수렴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정부부채를 경상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부터 각국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각국은 재정적자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더블딥에 대한 우려로 본격적인 세수인상 계획보다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자동안정화장치를 통한 세입, 지출 조절이 강한 EU 회원국의 특징상 실질적으로 경기회복에 의한 세입증가와 세출감소가 없으면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됨.

■ ECB와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선언

-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 전략의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ECB는 금리인상 및 유동성 회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 이번 11월 5일의 정례이사회에서 ECB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예외적인 경기부양책을 끝내는 '출구전략'의 검토는 시기상조임을 시사함.

○ 다만, 금리인상 등을 통한 출구전략 시행의 척도는 ① 인플레이션 압력의 발생 여부와 ② 경기의 성장세 진입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시장전문가들은 ECB의 금리인상 시점이 2010년 3/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영란은행은 현 0.5%의 기준금리를 2010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확대를 위한 양적완화정책(총 2,000억 파운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금융규제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2월 EU 정상들은 역내의 금융규제감독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했는데, 개선방안은 크게 △ 규제감독업무의 공조 △ 은행 건전성규제 충실화 △ 헤지펀드 및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한 적정규제 실시 △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및 기능 확충 △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등을 담고 있음.

○ 2009년 6월의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역내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범유럽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합의함.

○ EU는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유럽시스템리스크관리 이사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신설하고 중앙집권 형태의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함.

- EU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 제한 등 금융규제의 수위를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현재 프랑스는 금융기관의 보수에 특정 상한선을 두는 규제를 G20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고 독일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같은 입장을 보임.

○ EU 집행위원회의 바로수 위원장은 보너스 규제 제안이 G20 차원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EU 차원에서라도 실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현재 EU 의회에서는 은행 주요임원의 보너스의 최소 40% 이상을 성과 후 3년 후에 지급하며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안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의 중임.

다. 2010년 경제 전망

■ 점진적인 경기회복

- 2010년 EU 경제는 0.7%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의 주 예상동력으로는 2009년부터 시행되어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를 들 수 있음.

○ 2/4분기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 제조업 중심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과 제조업부문의 생산증가에 의한 경기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함.

■ 고용시장의 침체, 민간소비의 약세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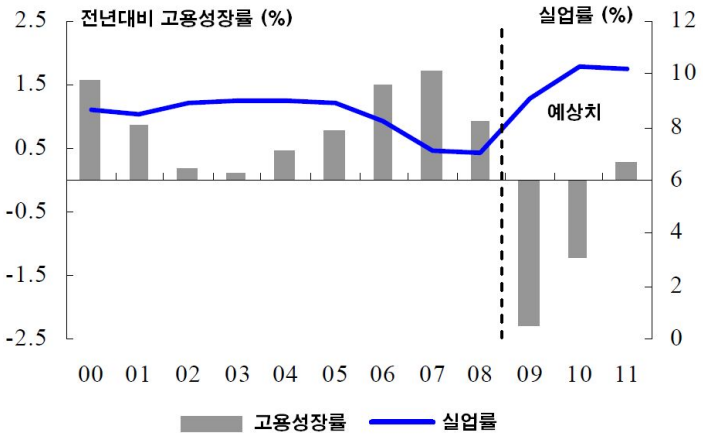
-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주도형 회복이 필요함.

○ 2010년에는 폐차보조금제도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GDP의 57%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수요의 확대가 추가적인 경기회복의 관건임.

- 고용시장의 위축, 민간부문 수요의 약세, 재정적자의 증가는 앞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EU의 고용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민간소비는 2009년 전년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0.2%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와 식료품, 에너지가격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은 2010년에는 1.3%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표 3. EU의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GDP	3.2	2.9	0.8	-4.1	0.7	1.6
민간소비	2.2	2.1	0.8	-1.7	0.2	1.2
정부소비	6.2	5.9	-0.3	-11.4	-2.0	2.5
총투자	1.5	1.7	0.9	-2.3	-1.2	0.3
실업률[1]	8.2	7.1	7.0	9.1	10.3	10.2
인플레이션[2]	2.3	2.4	3.7	1.0	1.3	1.6
재정적자[3]	-1.4	-0.8	-2.3	-6.9	-7.5	-6.9
국가채무[3]	61.3	58.7	61.5	73.0	79.3	83.7

주: 2009, 2010년은 전망자료임.
1) 실업률을 나타냄.
2)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명목변화율).
3) GDP 대비 수치.
자료: EU 집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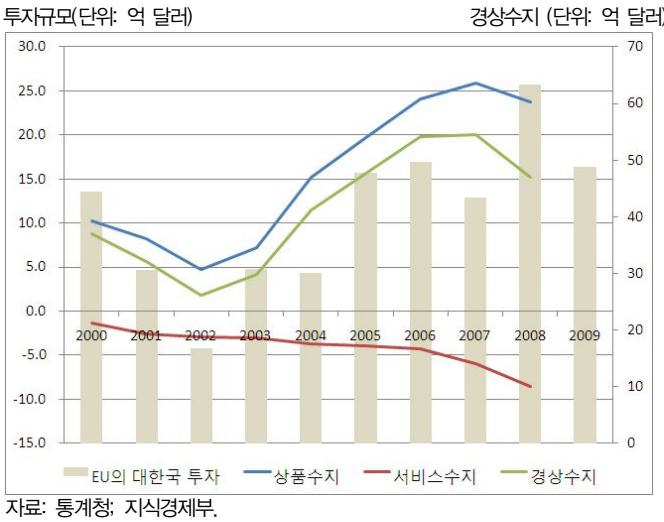
■ 대EU 경상수지 흑자폭의 감소 예상

- 한국의 대EU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2010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EU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EU 수출보다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EU의 대한국 투자 역시 2002~08년간은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감소세로 돌아섬.

그림 5. 대EU 경상수지 및 투자유치



자료: 통계청; 지식경제부.

- 따라서 한 · EU FTA의 발효를 통해 EU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을 높여 수출증대를 꾀하는 한편, EU기업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연구진(유럽팀)

강유덕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13460-123)
이현진 연구원 (hjeanlee@kiep@go.kr, Tel: 3460-1226)

4. 대양주

가.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상승

-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경제성장률이 뉴질랜드에서는 2008년 4/4분기, 호주에서는 2009년 1/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국면에 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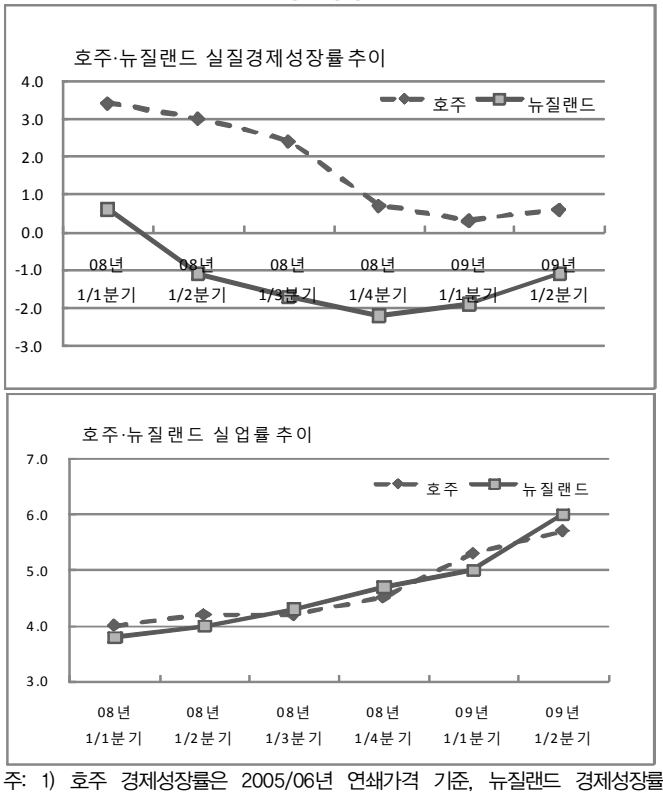
○ 신속한 팽창 재정 및 통화정책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기회복에 공통적으로 기여함.

○ 호주의 경우 중국의 광물자원(철광석, 석탄 등) 수요 증대, 뉴질랜드의 경우 2008년 가뭄 해갈로 인한 유제품 생산물량 증가가 경기회복에 추가적으로 기여함.

-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의 회복이 느려 실업률은 2009년 2/4분기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모두 5% 후반대로 꾸준히 증가함.

○ 1990년 이후 미국의 경우 고용 없는 성장은 대체로 경기회복 후 1~2년 동안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실업률도 당분간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호주 · 뉴질랜드 실질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주: 1) 호주 경제성장률은 2005/06년 연쇄가격 기준, 뉴질랜드 경제성장률은 1995/96년 연쇄가격 기준임.
2) 경제성장률, 실업률 모두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EIU Report(2009.12).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호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호주 정부는 576억 호주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안을 2009/10 회계연도에 편성하고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서 팽창재정정책을 유지하고자 함.

○ 인프라 부문에 총 220억 호주달러가 편성되었고, 신규주택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2008/09년의 50% 수준으로 내년까지 지급됨.

- 소규모 은행과 비은행권 주택담보 대출기관의 회복을 돕고 대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호주금융관리청(AOFM)은 주거용부동산저당증권에 투자함.

○ 2008년 12월~2009년 8월까지 74억 호주달러를 지원한 이후 80억 호주달러를 추가로 투입함.

- 호주 정부는 팽창재정정책과 금융권 회복을 돕는 금융정책을 펴는 반면, 호주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함.

○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09년 10월 7일 3.25%, 11월 3일 3.5%, 12월 1일 3.75%로 신속히 인상함.

■ 뉴질랜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뉴질랜드는 2010년 예산안에서 국내 수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지출을 늘이기로 결정함.

○ 인프라에 10억 뉴질랜드달러, 초고속 광대역망 구축에 2억 9,000 뉴질랜드달러,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정책에 3억 2,000 뉴질랜드달러를 지출할 예정임.

- 뉴질랜드 정부는 비상유동성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2008년에 발표된 예금보장제도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008년 7월부터 총 7회에 걸쳐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뒤 2009년 6월부터는 2.5% 기준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실상 출구전략을 시행 중인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는 2010년 중반 이후부터 금리인상을 추진할 계획임.

다. 2010년 경제 전망

■ 2%대 경제성장률 전망

-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최근까지 호주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1.5~3.0%, 뉴질랜드의 경우는 1.0~2.4%로 전망함(표 1 참조).

○ 대체로 해당국 재무부는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반면 대외기관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치를 발표함.

표 1. 호주 · 뉴질랜드 201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호주	뉴질랜드
해당국 재무부[1]	1.5%	1.0%
OECD[2]	2.5%	1.5%
IMF[3]	2.0%	2.2%
EIU[4]	2.0%	1.7%
Global Insight[5]	3.0%	2.4%

주: 1) 호주 재무부 발표 전망치는 2010/11 회계연도 전망치임.
2) OECD Economic Outlook(2009.11).
3) World Economic Outlook(2009.10).
4) EIU Report(2009.12).
5) Global Insight(2009.11).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및 웹사이트에서 취합 · 정리.

■ 질서 있는 출구전략이 2010년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필수

- 호주와 뉴질랜드의 재정은 대체로 건전하기 때문에 팽창재정정책을 당분간 유지하여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잃지 말아야 함.

○ 2009년 호주와 뉴질랜드의 재정적자는 각각 GDP의 −3.9%, −6.5%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각각 GDP의 18.9%, 29.5%로 예측됨(각국 12월 EIU Country Report).

- 실업률이 2010년 말까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지출 외에 민간투자와 수출 증가로 위축된 가계소비를 대체해야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호주와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과 같이 팽창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함.

○ 올해 3/4분기 소비자물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3%, 1.7% 증가함.

■ 2010년 한 · 호주 및 한 · 뉴질랜드 FTA 체결 목표

- 2009년 11월 30일~12월 4일까지 한·호주 FTA 3차 협상이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되었으며 2010년 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함.

- 올해 12월 말 한·뉴질랜드 FTA 3차 협상을 계획 중이고 2010년 FTA 체결을 목표로 함.

○ 2008년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 및 수입액은 각각 51.7억 달러, 180억 달러이고 대뉴질랜드 수출 및 수입액은 각각 8.3억 달러, 11.2억 달러임.

연구진

손기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ktsohn@kiep.go.kr, Tel: 3460-1220)
백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jbaek@kiep.go.kr, Tel: 3460-1075)

Ⅱ. 신흥시장국

1. 중국

가. 경제 동향

■ 경기 회복세 지속

- 중국경제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투자 확대로 2009년 3/4분기까지 7.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7년 2/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09년 2/4분기(7.9%)에 이어 3/4분기(8.9%)에도 성장세를 지속함.

○ 도시고정자산투자는 2분기 연속 30%를 웃도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경제성장세를 주도하였는바, 투자의 경제성장률(3/4분기까지)에 대한 기여도는 7.3%포인트에 달함.

■ 산업생산, 소매판매, 자산시장 등도 호조세

- 산업생산은 2009년 1/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매판매 역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함.

- 그밖에 제조업 경기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008년 12월(41.3)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09년 10월에는 2008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55.2)을 기록함.

-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각각 2008년 10월,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 물가하락세 둔화

- CPI는 2009년 2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3/4분기 CPI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3%로 2/4분기(-1.5%)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됨.

■ 수출부진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 기반은 불안정

-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도한 정부투자 의존, 소비동력 부족, 수출부진으로 경제회복 기반은 아직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08년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수출은 2009년 10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기준)를 지속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함.

○ 3대 수요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2009년 1/4~3/4분기): 투자 7.3%포인트, 소비 4%포인트, 순수출 -3.6%포인트

- 9월과 10월 수출 감소율이 각각 15.2%, 13.8%로 8월(23.4%)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2009년 내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 불투명함.

표 1.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연간	4/4	1/4	2/4	3/4	10월
GDP	9.0	6.8	6.1	7.9	8.9	-
산업생산	12.9	6.4	5.1	9.0	12.3	16.1
소매판매	21.6	20.6	14.9	15.0	15.4	16.2
도시고정자산투자	26.1	26.1	28.6	33.6	33.3	33.1
수출	17.2	4.7	-19.7	-23.5	-20.7	-13.8
수입	18.5	-7.9	-30.8	-20.2	-10.2	-6.4
CPI	5.9	2.5	-0.6	-1.5	-1.3	-0.5
실업률	4.2	4.2	4.3	4.3	4.3	-
총통화(M2)	17.8	17.8	25.5	28.5	29.3	29.4

자료:CEIC, Global Insight; 한국은행.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2008년 10월 이후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기조를 각각 '온건에서 적극으로', '긴축에서 적정수준의 완화'로 전환하고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운용해 오고 있음.

- 중국정부는 경기회복 기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판단, 2010년에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 또한 현재까지는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크지 않아 당분간 급격한 대출축소나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와 아울러 경제성장 구조 불균형(정부투자 의존적 성장패턴)을 시정하기 위해 인프라 위주의 대규모 재정투자보다는 소비촉진에 초점을 둔 내수부양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경기부양책 시행

- 2009년 들어 중국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재정투자 이외에도 내수 진작과 수출확대를 위해 각종 보조금 지급 및 감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표 2. 중국의 주요 경기부양 조치

구분	주요 조치
10대 산업 진흥정책 (2009.1~2)	- 10대 산업(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설비제조, 비철금속, 전자정보, 물류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내수확대, 기술개발, 구조조정이 핵심내용
가전하향(家電下鄕) 확대 시행(2009.2)	- 농민이 해당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판매가 13%의 정부보조금 지급
자동차 관련 세금 인하 (2009.1)	- 1,600CC 이하의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인하(10% → 5%)
수출환급세율 조정	- 수출확대를 위해 2008.8~2009.6.1까지 7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율을 상향조정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2009.7)	- 가전제품 교체시 구입가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베이징, 상하이 등 9개 지역에서 2010년 5월까지) - 중고 자동차를 신형으로 교체시 보조금 지급(50억 위안 규모, 2010년 5월까지)

자료: KIEP, 지역경제포커스; KIEP 북경사무소, 중국경제현안브리핑.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미세조정

- 최근 중국 내 유동성 급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 제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09년 10월 말 기준, 총통화(M2)는 전년동기대비 29.4% 증가, 위안화 신규대출(2009.1~10월) 규모는 8.9조 위안으로 2009년 목표치인 5조 위안을 이미 초과한 상태임.

표 3.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조치

주요 조치	주요 내용
유동성 관리 강화(2009.10)	- 2009년 10월 통화어음 발행 610억 위안, RP 590억 위안 발행 등으로 총 1,506억 위안의 유동성을 회수
상업은행 유동성리스크 관리지침과 대출관리에 관한 임시조치(2009.10.29)	-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 금지, 구체적 대출관리 세칙 및 관련 규정의 엄격 준수 요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대출제한 조치(2009.9.30)	- 과잉설비투자 산업(철강, 시멘트, 선박 등)에 대한 대출제한

자료: 한국은행.

- 향후 중국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대출 제한 및 유동성관리, 핫머니 유입 억제 등의 미세조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전망임.

다. 2010년 경제 전망

■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2010년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내수 확대, 해외수요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 등의 요인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중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개선이 예상됨.

○ 이에 따라 2009년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8% 경제성장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9%에 육박하는 성장률 기록도 가능할 전망임.

- 주요 전망기관들은 중국경제의 2010년 성장률을 8.7~9.0%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OECD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의 지속과 내수확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표 4. 주요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2009년	2010년
IMF	8.5	9.0
WB	8.4	8.7
OECD	8.3	10.2
중국사회과학원	8.3	9.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09.10);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2009.11);
OECD Economic Outlook(2009.11);
사회과학원 중국경제형세 분석 및 2009년 예측 추계보고(2009.10).

- CPI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 식품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0년에는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자산시장은 급증한 유동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나, 하반기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위안화는 사실상 2008년 7월 이후 미 달러화에 페그되어 있으며(US$1≒¥6.83), 수출이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이전까지는 뚜렷한 절상기미를 보이기 어려울 전망임.

■ 한국의 대중국 수출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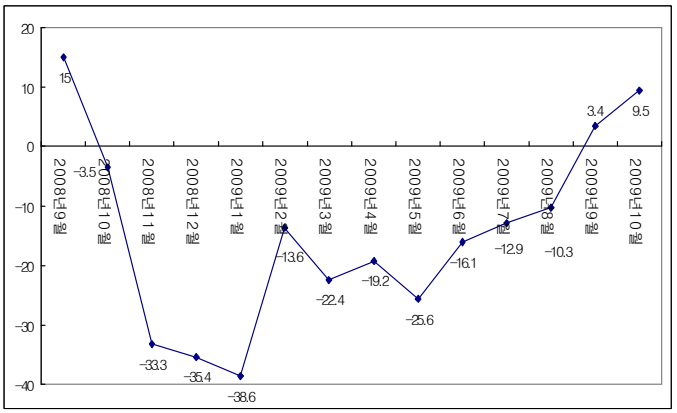
- 중국의 수출부진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08년 10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이후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대중국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5)]

○ 2009년 9월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당월 기준) 3.4% 증가한 데 이어 10월에도 9.5%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함.

○ 한국의 대중 수출을 주도한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내수진작책 시행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림 1.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증가와 중국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지속 등에 힘입어 2010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09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09년 1~10월 현재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4.7%, 34.8% 감소하였으며, 대중 무역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10.5억 달러 늘어난 255.1억 달러를 기록함.

○ 2009년 10월까지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2005년 232.7억 달러를 이미 추월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연구진

나수엽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5)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대부분 중간재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감소 → 중국의 중간재 수입 감소 →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를 초래.

2. 인도

가. 경기 동향

■ 2009/10년 2/4분기(7~9월) GDP 증가율 7.9% 급등

- 1분기(4~6월) 대비 1.8%포인트 급등으로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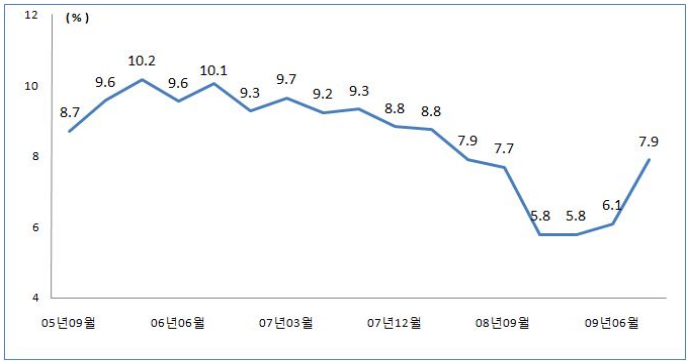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예상치(6.3%)를 크게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전 당시 성장률보다 높음.

○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기 5.1%에서 9.2%, 전기 및 가스 생산도 같은 기간 3.8%에서 7.4%로 급등함.

○ 공공예산 집행 증대 등으로 공공서비스도 같은 기간 9.0%에서 12.7%로 증가함

○ 한편 강우량 부족으로 농업생산은 같은 기간 2.7%에서 0.9%로 둔화됨.

그림 1.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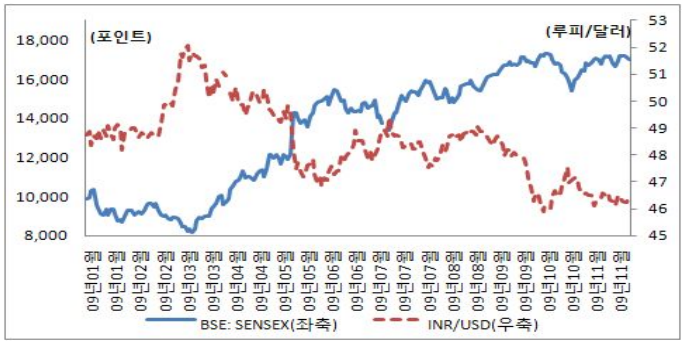
■ 경기 낙관심리 확산으로 주가 및 루피화 강세 지속

- 2009년 5월 총선 이후 강세로 본격 전환된 주가 및 루피화 가치는 최근 기대 이상의 성장률 달성으로 더욱 강세 분위기임.

○ 뭄바이 센섹스 지수는 최근 성장률이 발표된 12월 첫 주에만 3% 증가한 17,101포인터로 마감, 연초대비 약 73% 상승함.

○ 루피/달러 환율도 최근 성장률 발표 이후 더욱 떨어져 12월 4일 46.25루피로 연초대비 약 5%, 지난 3월 고점대비 약 11% 이상 하락함.

그림 2. 뭄바이 SENSEX 지수 및 루피/달러 환율 추이



자료: CEIC.

■ 곡물 등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도매물가 상승압력은 증대

- 2009년 7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도매물가가 상승세로 반전됨.

○ 생필품의 도매물가 상승률이 10월 전년대비 9.4%를 기록하는 등 물가오름세를 주도함.

○ 도매물가는 9월 0.6%에서 10월 1.6%로 빠르게 상승함.

그림 3. 도소매 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CEIC.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기결정이 최대 현안

-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인도 정부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채 유동성 회수정책에 돌입함.

○ 인도중앙은행은 법정유동성비율(SLR)을 1%포인트 인상하고, 수출금융의 리파이낸스 한도를 축소하며 상업용 건물 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인상하는 등 유동성 회수조치를 시작함.

- 최근 예상을 초과하는 높은 성장률 달성 및 물가상승 압력 등대로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당겨짐.

○ 11월 말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힘.

○ 이에 따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2월 첫 주에만 0.43%p 급등하는 등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짐.

○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 시기를 2010년 초 정도로 예상하면서도 빠르면 2009년 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다. 2010년 경제전망

■ 내수 및 수출 회복으로 성장세 유지 전망

– 자동차, 휴대폰 등 수요증가로 광공업 성장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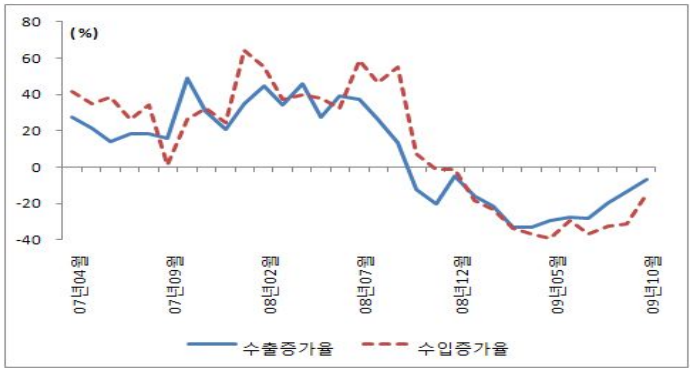
○ 3/4분기에 해당하는 10~11월 자동차 판매대수가 신기록을 달성하고, 지난 10월 휴대폰 신규 가입자도 지난 3월 이후 또다시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소비수요가 견조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8개월째 기준치를 상회하는 등 확장국면에 있어 투자 회복세도 보다 빨라질 전망임.

– 수출입 감소세도 최근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경기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음.

○ 2009년 6월 전년동기대비 -28%, -39%까지 기록하였던 수출입 증가율이 10월 -6.6%와 -15%로 개선됨.

그림 4.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CEIC.

■ 2010/11년 8% 이상 성장률 재진입 전망

– 2009/10년 7% 이상 성장 가능성 증대

○ 최근 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모건스탠리, 코탁마힌드라뱅크 등 투자은행 등은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6.7%와 6.9%로 상향 조정함.

○ 2009/10년 상반기 이미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글로벌 리스크만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2009/10년 7% 이상의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전망임.

– 글로벌 경기회복이 보다 완연해지는 2010/11년에는 8%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전망임.

○ 수출입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 및 투자 증가율이 예년 수준으로 높아지며, 농업생산이 순조롭다면 8% 이상의 성장률 달성은 어렵지 않음.

○ 경기상승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점진적인 인상으로 투자 및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표 1. 주요 기관별 인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기관 (전망 시점)	2008/09년	2009/10년(F)	2010/2011년(F)
인도총리실 경제자문위(10월)	6.7	6.5	–
ICRIER(인도연구소,10월)		5.8~6.1	–
IMF(10월)*		5.3	6.5
ADB(9월)		6.0	7.0
Global Insight(10월)		5.6	7.0
OECD(11월)		6.1	7.3
EIU(11월)		5.8	6.5

주: * calendar year 기준.
자료: 각 기관 최근 전망 보고서.

■ 한·인도 CEPA 발효 원년 적극 활용 필요

– 2010년 1월부터 발효되는 한·인도 CEPA를 대인도 교역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통관 시 양허관세율 적용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문제발생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인도 전문인력 유입 증대에 대비, 인력 활용 및 관리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임.

연구진

조충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Tel: 3460-1025)
송영철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39)

3. 러시아

가. 경제동향

■ 2009년 러시아 -8% 성장, 3분기 경기하강세 다소 완화

- 2009년 러시아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분기 -9.8%, 2분기 -10.9%, 3분기 -8.9%를 기록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계절변동조정통계의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면서 경기하강세가 다소 완화됨.

○ 러시아 경제가 하락한 배경은 대외적으로 석유가스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과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급감, 대내적으로 유동성 경색에 따른 산업생산 및 투자 감소, 가계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 크게 작용함.

○ 최근 세계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러시아 기업들의 재고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산업생산이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이 둔화되고 있으나, 고정자본투자 및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완전한 경기회복세로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실정임.

표 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1)]

	2008		2009	
	10월	1~10월	10월	1~10월
GDP 성장률[2)](%)	4.8	7.0	-8.1	-9.6
산업생산증가율(%)	0.6	4.9	-11.2	-13.3
고정자산투자증가율(%)	5.3	15.1	-17.9[3)]	-18.8
소비자물가상승률 (전기 대비,%)	0.9	11.6	0.0	8.1
실질임금상승률(%)	9.7	12.3	-4.5	-3.6
소매거래량 증가율(%)	12.9	15.3	-8.5	-5.7
수출(십억 달러)	39.1	412.7	30.0[2)]	238.2[2)]
수입(십억 달러)	27.5	246.0	18.7[2)]	150.2[2)]
우랄산 평균 유가 (배럴당 달러)	70.5	103.9	72.5	58.3
환율(루블/US달러, 평균)	26.36	24.28	29.48	32.21

주: 1)전년동기대비, 2)러시아경제개발부 추정, 3)러시아통계청 추정.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

■ 2009년 10개월간의 수출 및 수입 크게 감소

-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와 전년대비 큰 폭의 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009년 1~10월 기간 동안 러시아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1~10월 기간 동안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은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하였음.

○ 그러나 연초대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출액은 전월대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1월 202억 달러 → 7월 263억 달러 → 10월 300억 달러 전망).

- 2008년에 비해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둔화된 가운데, 가계소득 및 기업투자 감소로 자동차, 기계설비 및 운송장비, 금속(제품)에 대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1~10월간 러시아의 수입액은 38.9% 감소하였음.

■ 물가 상승률 둔화세 지속, 연초대비 환율 평가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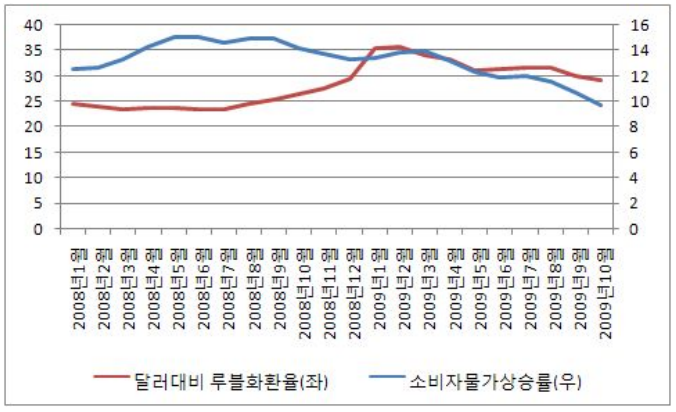
-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가계소비 감소,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분기 13.7%, 2분기 12.4%, 3분기 11.4%로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임.

○ 전월대비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7월 0.6%를 기록한 이후 8월부터 3개월 연속 0%를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2월 달러당 35.72루블이었던 대달러 환율도 10월 29.05루블로 평가절상 되었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화가 1% 평가절상할 경우, 소비자물가를 0.3%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바, 9월부터 본격화된 루블화 평가절상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월별 추이(2008년~2009년 10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실물경기 회복 위해 금융완화 정책 실시

-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완화를 통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2009년 초 13%의 기준금리를 8차례 추가 인하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9.5%임(10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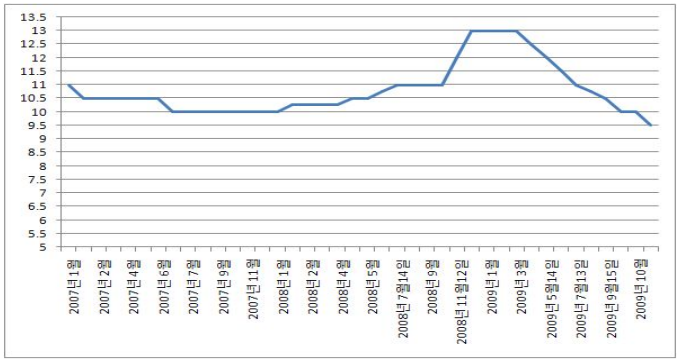
○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발생 후 러시아 정부는 초기에 환율 방어에 매진하면서 경기부양책이 적기에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탓에 경기 회복세가 중국, 브라질 등에 비해 가장 부진한 상황임.

○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기업의 실질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아 실물부문의 신용경색은 개선되지 않음.

–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의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2010년에는 9% 이하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그림 2. 러시아 기준금리 추이(2007~09년)

(단위: %)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2010년 예산지출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재정정책 실시 계획

– 러시아 정부는 2010년부터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위기극복대책이 반영된 2009년 수정 연방예산은 총 재정지출액이 9조 6,922억 루블(GDP 대비 약 24%)로 기존 확정 예산보다 7.3% 증가하였음.

○ 석유안정화기금은 경기부양에 따른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바, 10월 1일 기준, 석유가스 안정화기금(예비기금 및 국민복지기금)은 연초 6조 6,121억 루블에서 5조 614억 루블로 감소한 상황임.

표 2. 러시아연방 재정계획(2009~12년)

(단위: GDP 대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수입	17.2	16.1	15.5	15.0
재정지출	25.5	22.9	19.5	18.0
재정수지	−8.3	−6.8	−4.0	−3.0

주: 「2010~12년 러시아연방예산법초안」에 기초한 예상치임.
자료: 러시아재무부; World Bank에서 재인용.

■ 국가 경제 현대화의 5대 전략 방향 제시

– 최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나친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5대 경제 현대화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생산, 운송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핵기술 발전 △ 정보기술 개선 △ 우주항공기술 발전 △ 최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장비 생산 등임.

다. 2010년 경제 전망

■ 2010년 러시아 1.6% 이상의 경제성장 예상

– 2009년 경기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이에 따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010년에는 1.6% 이상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세계은행은 향후 예상되는 높은 유가와 전년도 경기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2010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3.2%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함.

표 3. 2010년 국제유가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전망 변화

(단위: %)

	2010년			
	Ⅰ	Ⅱ	Ⅲ	Ⅳ
GDP	−0.2	1.6	3.0	4.4
실질가처분소득	−0.6	0.4	1.4	2.4
고정자산투자	−2.5	1.0	4.5	8.0
수출(십억 달러)	305.9	348.5	384.0	425.5
수입(십억 달러)	252.9	271.3	285.7	297.0

주: 연평균 우랄산 유가 배럴당 Ⅰ)45달러, Ⅱ)58달러, Ⅲ)68달러, Ⅳ)80달러인 경우.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2010년 러시아 경제성장은 유가 및 국제수요 동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랄산 국제유가를 4개 시나리오로 분류해 다음과 같이 성장 전망을 발표하였음(표 3 참조).

■ 한 자릿수 물가 실현 가능성, 환율 현 상태 유지 전망

- 국내 소비 감소에 의한 현 물가상승률 추세가 2010년에도 지속되어 9~10% 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오일달러의 증대로 루블화 평가절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 과도한 평가절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의 환율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고용창출과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내수 확대와 지속적인 루블화 강세는 수입물가 상승만 부추겨 인플레이션 억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임.

■ 2010년 수출 및 수입 모두 다소 증가

- 러시아 경제개발부의 2010~12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러시아의 수출은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3,066억억 달러, 수입은 약 5% 증가한 1,99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전망은 실질 대출 규모가 증가, 기업 경쟁력 회생에 의한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랄산 국제유가를 배럴당 58달러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

○ 세계경기 회복세가 강하고, 우랄산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68달러선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러시아의 교역량은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수출 20%, 수입 13%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연구진

이재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ljy@kiep.go.kr, Tel: 3460-1089)
황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hjydream@kiep.go.kr, Tel: 3460-1095)

4. 브라질

가. 경제 동향

■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

-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8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경기침체를 기록했으나 2009년 2분기부터 성장세(전기대비 1.9% 성장)로 전환됨.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대폭적인 금리인하 등에 힘입은 소비 확대가 경기회복을 견인함.

○ 브라질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자동차 소비확대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공업제품세(IPI)를 대폭 감면해옴.

○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기진작을 위해 2009년 초부터 대폭적인 금리인하(연초 13.75% => 6월 8.75%)를 단행함.

■ 안정적 물가수준 유지

- 환율하락에 힘입은 수입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함.

○ 달러대비 헤알화 가치는 12월 7일 현재(지난해 말 대비) 25.7% 상승함.

○ 2009년 9월까지 12개월간 물가는 4.34%로 정부의 물가목표치 4.5%(±2%)를 하회함.

■ 지속적 고용개선

- 신속한 경기회복에 힘입은 고용 확대로 실업률은 하락세로 돌아섬.

○ 2009년 9월 실업률은 7.7%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 전년동월 수준을 회복함.

표 1. 최근 경제 동향

	2008년	2009년		
	4/4	1/4	2/4	3/4
GDP(전기대비, %)	-3.4	-1.0	1.9	1.5~2.0*
실업률(평균, %)	7.3	8.6	8.6	7.9
소비자 물가(%)	6.2	5.8	5.2	4.4

주: * EIU 전망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Global Insight.

■ 광공업 생산은 10개월 연속 회복세

- 10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2.2% 증가하며, 2009년 1월부터 10개월째 회복세를 이어옴.

- 그러나 10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2% 하락한 것이어서 브라질 경제가 세계경제위기 여파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름.

○ 2009년 1~10월 광공업 생산도 전년동기대비 10.7% 하락했으며, 최근 12개월간의 광공업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 하락함.

■ 주가는 금융위기 수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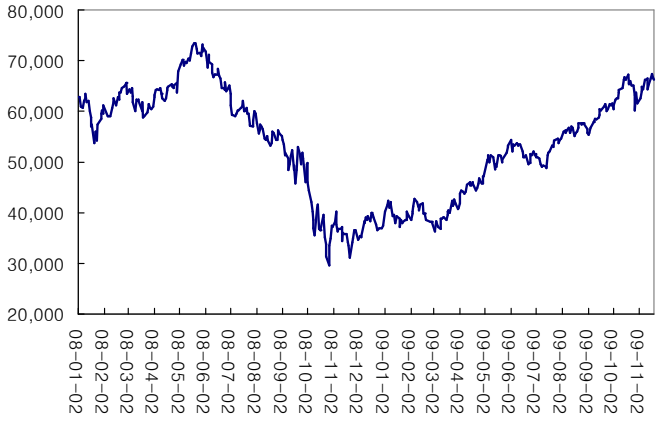
- 원유 등 1차산품 국제가격의 상승과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주가는 2009년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함.

○ 2월 4일 현재 주가는 지난해 연말대비 80% 상승함.

- 특히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2016년 올림픽 개최 확정 등에 따른 브라질 경제의 낙관적 전망도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함.

○ 2009년 9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무디스사가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Ba1)에서 투자적격등급 (Baa3)으로 상향 조정함.

그림 1. 브라질 주가(BOVESPA) 추이



■ 2009년 플러스 성장 전망

- 소비를 축으로 한 신속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09년 브라질 경제는 당초 예상을 넘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임.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9년 브라질 경제 성장세가 0.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당분간 팽창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 브라질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실시해온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한 세제 감면 조치를 지속적으로 연장 실시해오고 있음.

○ 당초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공업제품세(IPI)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만 연장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중연료 차량에 한해 2010년 1월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함.

○ 백색가전제품에 대한 공업제품세(IPI) 인하도 2010년 1월까지로 연장 실시함.

- 인프라 부문 등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로 2010년 재정수지 목표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브라질 정부는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0년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GDP 대비)를 당초 3.3%에서 2.65%로 하향 조정을 검토함.

※ 기초재정수지(명목재정수지-이자지급)는 브라질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 그러나 명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확대에 힘입어 2009년 -3.7%(GDP 대비) 적자에서 -1.3% 적자로 개선될 전망(IMF 전망)임.

■ 금리 동결 정책 기조 유지

-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기진작을 위해 2009년 들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음.

- 2분기부터 경기회복 기미가 뚜렷해짐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금리인하를 기조를 중단하고 동결 정책으로 일관해오고 있음.

- 금리인상은 2010년 2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물가인상 압력이 높지 않은데다 완전한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2010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전망임.

■ 지나친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단기자본 유입 억제책 실시

- 브라질 정부는 투기적 자본의 과다 유입에 따른 헤알화 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대응책을 실시해옴.

○ 먼저 주식 및 채권을 겨냥한 외국인투자자금에 대해 2.0%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함(2009.10.19).

○ 또한 브라질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ADR)에 대해서 1.5%의 세금을 부과함(2009.11.19).

- 현재 대응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단기자본 유입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대응책 실시 가능성이 상존함.

다. 2010년 경제 전망

■ 4%대의 경제성장 전망

- 2010년 브라질 경제는 소비확대 지속, 10월 대선을 앞둔 정부의 팽창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 기대감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4%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임.

- 빠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고용여건도 2009년보다 크게 개선, 실업률은 2009년 평균 8.2%에서 7.8%로 하락할 전망임.

- 신속한 경기회복, 물가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 생산자물가 상승 등의 압력으로 소비자물가는 2009년 수치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나 정부의 물가 목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임.

표 2. 브라질 경제 전망

(단위: %)

전망 기관	2009	2010	2011
IMF	-0.7	3.5	3.5
OECD	0.0	4.8	4.5
Global Insight	0.2	4.3	5.7
중앙은행	0.2	5.0	-

자료: IMF(2009.10); OECD(2009.11), Global Insight(2009.11), 브라질중앙은행(2009.11)

■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 및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 전망

- 브라질의 경기침체로 2009년 1~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8% 하락했음.

○ 그러나 9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수출은 브라질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10월 들어 22% 성장세(전년동월대비)로 급반전됨.

○ 최근 대브라질 수출은 자동차 및 산박용 엔진·부품이 증가세를 견인함.

- 2010년 대브라질 수출은 브라질 정부의 유전개발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유전개발 및 건설플랜트 관련 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임.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되었던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며 이에 따른 투자 및 수출 증가도 예상됨.

연구진

권기수 미주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5. 멕시코

가.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최악의 경기침체

-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여파로 1995년 외환위기 후폭풍보다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있음.

○ 금융시장은 미국 금융위기 발발 직후 외환시장 개입, 유동성 공급확대, FRB와 통화스왑 체결, IMF의 금융지원 등을 기초로 안정되었지만, 2009년 들어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었음.

○ 2008년 4/4분기 -1.6% 이후 2009년 3/4분기 -6.4%에 이르기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중임.

- 수출시장의 80%를 담당하는 미국 내수 침체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이 경제성장의 동력인 교역 감소, 산업생산 감소, 고용악화, 소비위축,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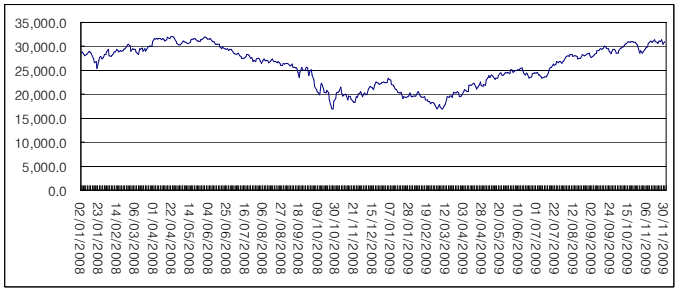
○ 2009년 1~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6.9%(비석유부문 -22.2%, 석유부문 -47.8%), 수입은 28.7% 감소하였음.

- 여기에 유가하락(멕시코산 월평균 석유수출가격 2008.7 120달러→2008.12 33달러→2009.9 69달러), 신종플루 발생 및 관광산업 침체(관광수입 1~9월 -15.3%), 해외송금 감소(1~10월 -16.1%) 등의 악재가 더해졌음.

■ 주식시장, 위기이전 수준 회복

- 주가지수(IPC)는 금융위기를 전후로 최고 47%까지 하락했으나 유동성 공급,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2009년 3월 중순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11월 말 현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그림 1. 멕시코 주가지수(IPC) 동향(2008.1.2~2009.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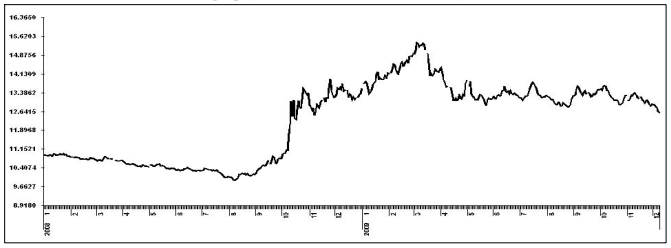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INEGI).

■ 외환시장, 안정 회복

- 2008년 들어 강세를 지속하던 페소화는 글로블 금융위기 발발과 더불어 급락세를 지속함.

- 그러나 환율방어보다는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FRB와 통화스왑 체결, IMF의 FCL 승인 등 외환시장 안정책을 바탕으로 3월 중순이후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 중임.

그림 2. 멕시코 환율 동향(2008.1.2~2009.12.8)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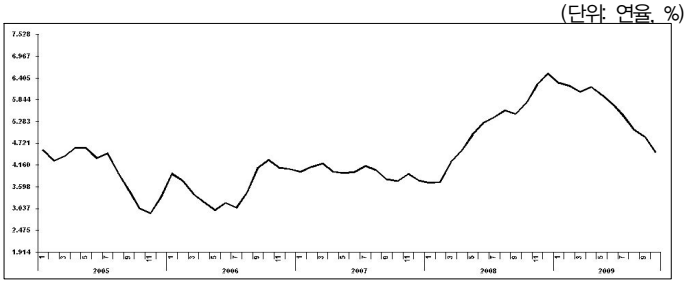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하락세로 반전

- 물가목표제(2~4%)에 기초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2006년까지 3%대의 소비자물가를 달성하는 기초가 되었지만, 이후 국제경제 호황에 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환율상승 요인이 가세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위기발생 이후 물가상승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인이 제거되고, 환율안정세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는 2008년 12월(6.5%) 이후 하락세를 지속, 2009년 10월 말 현재 4.5%를 기록 중임.

그림 3. 멕시코 소비자물가 동향(2005년 1월~2009년 10월)

(단위: 연율, %)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세를 우려하여 고금리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경기침체 심화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7회) 정책금리를 8.25%에서 4.5%로 인하한 후 유지 중임.

■ 노동시장 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3%대에 머물던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 9월 통계청 공식실업률이 2000년 신규산출법(NEOE) 도입 이후 최고치인 6.03%를 기록함.

○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조업(-11%, 42만 6,000명)과 건설업(-9.5%, 11만 6,000명)의 고용 감소율이 가장 심각하고, 지역별로는 공업지대가 집중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가 심각함.

- 사회보장기구(IMSS) 등록 근로자 수는 2008년 10월 1,460만 명을 정점으로 2009년 6월 1,372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2009년 상반기 고용감소율 4%, 약 60만 명)하다가, 7월부터 반전되어 10월 1,496만 명을 기록 중임.

■ 2010년 멕시코 경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2009년 3/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 이후 성장세를 보인 미국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더디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임.

○ 멕시코 경기는 3/4분기에 전기대비 2.93% 성장하고 종합경기지수가 8월 이후 상승세를 기록한데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상반기에 바닥을 친 것으로 평가되며, 하반기 회복세에 기초하여 2009년 -7~-8%, 2010년에는 2~3%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성장동력인 수출만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투자, 생산, 고용, 소비 등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을 것임.

○ 월별 30%를 상회하던 수출 감소세는 8월 -24.9%, 9월 -17.3%, 10월 -10.0% 등 지속적으로 둔화된바, 이미 수출은 회복세에 있음.

- 수출부문 회복기미가 보이면서 10월 실업률이 6%대에서 5%대로 하락한 가운데 7월부터 IMSS 등록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전망이 긍정적으로 반전되고 있어 향후 고용시장도 안정을 회복할 전망임.

-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상승 가능성 등 물가상승을 유발한 요인들은 상존하지만, 더딘 경기회복과 2010년 하반기 통화정책 긴축전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보다는 예년의 4%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임.

- 현재 13페소 초반대를 유지 중인 환율은 외환시장 안정, 수출회복, 원유수출가격 강세, 경기회복에 따른 외환소득(해외거주자 송금, 관광) 증대 전망, 외환보유고 수준(800억 달러) 등을 감안할 때 2010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임.

표 1. 멕시코의 GDP 성장률 전망(2009~11년)

	2009	2010	2011
IMF	-7.3	3.3	4.9
OECD	-8.0	2.7	3.9
Global Insight	-7.5	3.3	3.2
BANXICO	-7.2	2.9	3.2

자료: IMF(2009.10), *World Economic Outlook: Sustaining the Recovery*;
OECD(2009.11), *OECD Economic Outlook: Preliminary Edition*, Vol. 2009/1, No.86;
Global Insight(2009.11),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Interim Forecast, Monthly);
멕시코 중앙은행 2009년 10월 전망치.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출구전략 시행 시기

- 멕시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실물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재정, 금융, 통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안정과 경기부양에 매진해 왔음.

○ 2009년 말 현재 현저한 경기회복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비정상적인 경제정책방향을 위기 이전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음.

-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멕시코의 입장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2010년 각종 경제정책의 핵심에는 출구전략이 위치할 전망임.

■ 재정정책

- 2009년 실시된 경기부양(GDP 대비 1.7%) 재원 대부분을 유가 상승분 및 석유안정기금으로 충당하여, 2010년 재정정책의 부담은 낮음.

- 그러나 세입감소를 예상한 2010년 적자재정(-0.5%) 편성이 재정정책에서 자연스런 출구전략의 한 방안(automatic stabilizer)으로 작동될 전망임.

- 또한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2010년 예산안에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고 세율을 인상한 것도 사실상 출구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15%→16%), 법인소득세(28%→30%, 3년간), 단일세율법인세(IUTE, 17%→17.5%), 특별소비세(IEPS, 전화요금세 3% 신설, 담배세 갑당 0.8페소→1.1페소, 맥주세 3년간 25%→28%), 현금예금세(IDE, 2%→3%)

■ 통화정책

- 더딘 경기회복, 물가수준(4%대), 출구전략 국제공조 입장, 2010년 예산안의 기준금리(4.5%) 등을 감안하면 2010년 하반기까지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음.

- 그러나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했던 채권시장에의 개입(장기 국공채 발행, 축소 및 단기채 발행 확대, 금리스왑거래 도입, 중장기 국채 매입)을 위기 이전 방안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임.

다. 한국과의 경제관계 전망

■ 2010년 양국 교역, 2008년 수준 회복 어려울 전망

- 최근 5년간(2004~08년)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과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32%와 26.4%를 기록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21.5%와 3.6%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8년 말에 『2009년 한국-멕시코 교역 전망』에서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금융위기와 내수의 급속히 침체가 멕시코경제의 동반적인 침체를 야기하면서 양국 교역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한 바 있음.

○ 그러한 전망의 기초에는 대멕시코 수출품목이 주로 멕시코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대미시장 및 중남미 주변시장으로 재수출되는 중간재이고, 대멕시코 수입품목은 수출용 중간재 혹은 완제품을 제조하는 원료에 해당하는 동제품 및 아연광 등이라는 점이었음.

- 실질적으로 2009년 10월까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27.9%, 수입은 -13.6%를 기록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9월부터 30%대에서 20%대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수입은 8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음.

표 2. 한국 · 멕시코 교역규모

(단위: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9.9	4.1	37.9	4.6	62.8	7.9	74.8	10.1	90.9	10.5	59.5	7.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0년 양국간 교역은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총 교역량은 2008년 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전망임.

○ 양국 경제의 회복세 및 수출입 증가세, 2009년 3/4분기 이후 멕시코의 대세계 교역 회복 기미, 4/4분기 양국간 교역 추세 등은 2010년 양국간 교역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세계경제 회복 지연 및 더블딥 가능성, 2010년 내 글로벌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잠재된 신흥시장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해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임.

■ 대멕시코 투자 위축 지속 전망

- 대멕시코 투자는 2005년부터 멕시코 경제의 호황에 편승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급랭으로 2009년에 급락함.

○ 2007년 1억 달러, 2008년 2억 4,000만 달러 등 증가하던 대멕시코 투자는 2009년 9월 현재 3,000만 달러에 머물고 있음.

- 2010년 대멕시코 투자는 멕시코 경제회복의 지연, 세계경제 향방의 불투명성, 한국기업의 2009년 대멕시코 투자프로젝트 계획 부재 등으로 2009년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임.

○ 특히 2009년 11월 23일 Fitch Ratings의 멕시코 외채신용등급 하향 조정(BBB+→BBB)은 멕시코 투자환경 악화를 경고하는 것이어서 대멕시코 투자 회복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임.

표 3.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9	누계
신고	69,635	27,442	37,334	85,721	117,031	228,188	292,339	122,593	1,295,694
투자	43,916	20,791	25,328	73,319	58,596	119,868	236,658	29,617	833,7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진

김진오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Tel: 3460-1085)

Ⅲ. 개도국경제권

1. 동남아시아

가. 경제 동향

■ 2009년 동남아시아 연평균 경제성장률 0% 수준으로 추정

- 세계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제조업 및 상품수출 수요의 감소로 2009년 동남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0.6%로 추정되며,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인 1997년 3.9%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

○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음(-)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내수기반을 갖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각각 4%, 4.6% 수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임(표 1 참조).

표 1. 동남아 국가들의 GDP성장률 추이 및 추정(2007~09년)

(단위: 전년대비, %)

국가명	2007	2008	2009*
인도네시아	6.3	6.1	4.0
말레이시아	6.2	4.6	-3.6
필리핀	7.1	3.8	1.0
싱가포르	7.8	1.1	-3.3
태국	4.9	2.6	-3.5
베트남	8.5	6.2	4.6
캄보디아	10.2	6.7	-2.7
라오스	7.5	7.2	4.6
미얀마	11.9	4.0	4.3
브루나이	0.6	-1.5	0.2
평균	**7.1**	**4.1**	**0.6**

주: * 추정치.
자료: IMF.

■ 2009년 1/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 회복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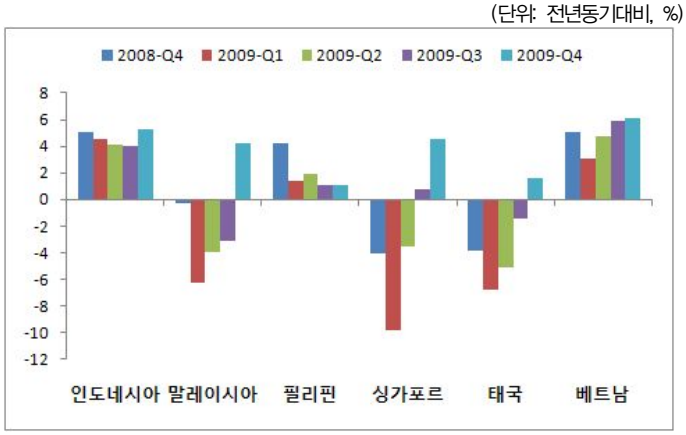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2009년 1/4분기 또는 2/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심한 충격을 입었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회복세가 뚜렷하며, 태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 분기별 성장률이 5~6%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음.

그림 1. 동남아 국가들의 최근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및 예측 (2008년 4/4분기 ~ 2009년 4/4분기)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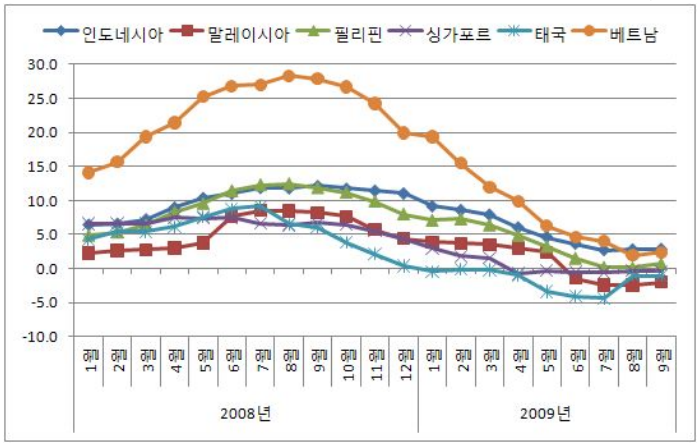
■ 200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평균 2.8% 수준의 안정세

-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특히 석유와 식품 중심의 상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평년 수준의 농산물 생산으로 2009년 1~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8% 수준임.

○ 지난해 두 자리 이상 급격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겪었던 베트남에서도 2009년 9월 현재 3% 수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임.

그림 2. 동남아 주요국의 월별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2008년 1월 ~ 2009년 9월)

(단위: 전년동월대비, %)



자료: CEIC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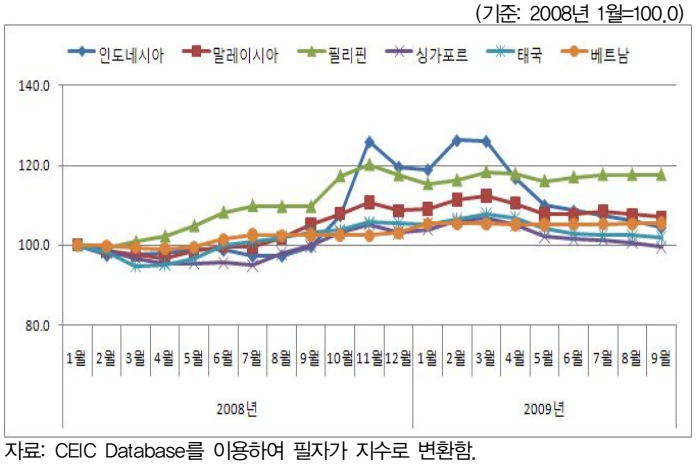
■ 통화가치의 안정세

-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달러대비 동남아 주요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2009년 중반 이후 안정세로 돌아섬.

○ 급격한 통화가치 감소를 겪었던 인도네시아 루피(rupiah)는 2009년 이후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이 이루어졌음.

그림 3. 동남아 주요국 통화의 對달러 환율변화 추이(2008년 1월 ~ 2009년 9월)

(기준: 2008년 1월=100.0)



자료: CEIC Database를 이용하여 필자가 지수로 변환함.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경기부양책은 지속하되 정부지출의 점진적 감축

- 2009년 하반기부터 동남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은 지속하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짐.

■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지속

-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현 상황 유지 또는 일부 인상이 이루어짐.

- 상품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리핀의 경우 2010년 쌀 선도구입, 베트남의 경우 환율의 일일 법정 변동폭 감소 등과 같은 정책 도입이 이루어짐.

■ 경기부양책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 집중

- 경기부양책 중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표 2. 동남아 주요국의 2010년 주요 경제정책

국가명	2010년 주요 경제정책
싱가포르	o 경기부양책 지속 o 중앙은행, 명목유효환율에 있어 화폐가치의 절상을 가져오지 않는 현 정책(zero appreciation) 유지 o 직장신용제도(Jobs-Credit Scheme)[6] 6개월 연장 및 지원 감축(2010년 6월까지)
말레이시아	o 재정지출 감소(2009년 지출예상 612억 US달러 → 2010년 목표 550억 US달러) o 중앙은행 기준금리 2% 유지, 법정지준율 1% 유지 o 인터넷 보급률 25% → 50%로 확대(정부 지원 32억 US달러)
인도네시아	o 2% 감축된 법인세 유지 o 중앙은행, 기준금리 6.5% 유지 o 2010년 저소득층 유류지원(총 정부지출의 10.2%, 107조 루피아) o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집행 내실화(2009년 총 11.6조 루피아 중 투자 집행 50% 미만) o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 7%, 실업률 8% → 5~6%, 빈곤층 비율 14% → 8~10%, 매년 총 2,100조 루피아 투자 중 특히 사회간접시설에 집중
태 국	o 경기부양책 지속(예: 2012년까지 계획된 400억 US달러의 조기 집행 계획) o 중앙은행, 기준금리 1.25%(2009년 4월 3.75% → 1.25%) 유지 o 달러 대비 바트가치 인상 방지를 위한 정책 지속(예: 외환보유 증대)
필 리 핀	o 재정적자의 점진적 해소 노력 o 중앙은행, 기준금리 유지(차입 4%, 대출 6%) o 석유 및 식량가격 대비책 마련(예: 2010년 쌀 수입량 25만 톤 확보) o 2010년 5월 대통령, 상·하원 및 지방공무원 선거
베 트 남	o 경기부양책 일부 감축(예: 상업성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보조 4% → 2%포인트, 2010년 3월까지 한시적 단기대출 용이, 2010년 말까지 중장기 자금대출 용이) o 2010년 초 10억 달러 상당 국제 채권 발행 예정 o 중앙은행, 달러대비 화폐가치 5% 인하, 기준금리 7% → 8% 인상, 일일 법정 환율 변동폭 감소(±5%→±3%)

자료: EIU.

다. 2010년 경제 전망

■ 세계경제 회복 및 경기부양책 효과로 경제성장률 회복 전망

- 인도네시아 4.8~5.1%, 말레이시아 2.5~5.0%, 필리핀 3.2~3.7%, 싱가포르 3.9~4.1%, 태국 3.3~5.0%, 베트남 5.3~7.1% 등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기부양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가시화될 것이며,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지역의 경제 회복 및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달러 및 위안화 대비 동남아 각국의 화폐가치 상승압력이 동남아 지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6) 직장신용제도: 정부가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임금(1,800US달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2009년 시행 초기에는 1인당 126달러에서 2009년 6월 이후 54달러로 지원액 감소.

표 3. 동남아 국가들의 2010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국가명	실질GDP 성장률		
	IMF	EIU	Global Insight
인도네시아	4.8	5.1	5.0
말레이시아	2.5	3.5	5.0
필리핀	3.2	3.7	3.5
싱가포르	4.1	3.9	3.9
태국	3.7	3.3	5.0
베트남	5.3	6.0	7.1
캄보디아	4.3	3.3	4.4
라오스	5.4	7.0	5.8
미얀마	5.0	3.1	0.9
브루나이	0.6	n.a.	2.0

자료: IMF(2009.12); Global Insight(2009.10); EIU(2009.12).

■ 물가상승률의 지속적 증가 예상

- 인도네시아 5.1~6.2%, 말레이시아 1.2~2.2%, 필리핀 4.0~4.3%, 싱가포르 1.1~2.4%, 태국 2.1~2.8%, 베트남 6.9~11.0% 등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금융위기로 인해 낮아졌던 인플레이션이 최근 경기회복 및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더불어 상승하는 것이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표 4. 동남아 국가들의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단위: %)

국가명	소비자물가 상승률		
	IMF	EIU	Global Insight
인도네시아	6.2	5.8	5.1
말레이시아	1.2	1.5	2.2
필리핀	4.0	4.2	4.3
싱가포르	1.6	2.4	1.1
태국	2.1	2.2	2.8
베트남	11.0	8.7	6.9
캄보디아	4.1	n.a.	6.1
라오스	3.0	n.a.	4.5
미얀마	4.8	n.a.	n.a.
브루나이	1.2	n.a.	0.6

자료: IMF(2009.12); Global Insight(2009.10); EIU(2009.12).

■ 외부위기 대응을 위한 아세안의 역내 협력 강화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순수한 수출지향적인 경제성장 모델에서 수출선의 다변화, 내수시장의 확대, ASEAN 역내 수요 증대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며, 곡물과 석유가격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지역차원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

■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 동남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더불어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 및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국의 대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 완료, '신아시아 외교' 에서 ASEAN 위상 강화,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향후 무역과 투자 및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연구진

김태윤 부연구위원 (tykim@kiep.go.kr, Tel: 3460-1158)

2. 중남미

가. 경제 동향

■ 금융 및 외환 시장의 안정세 지속

-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크게 하락했던 중남미 각국의 주가는 2009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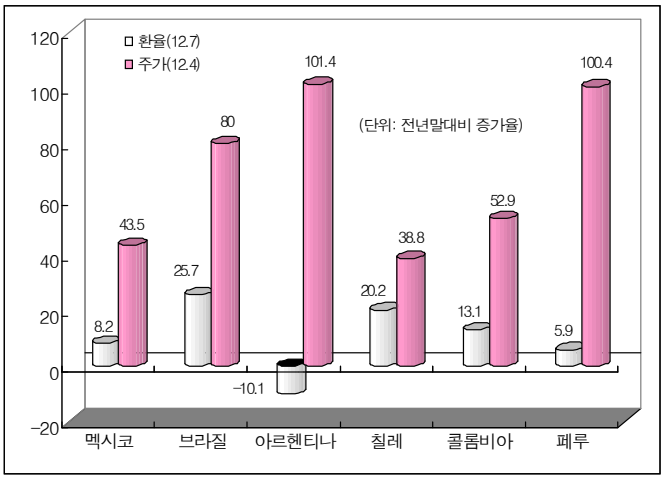
○ 2009년 12월 4일 현재 주가(전년말 대비)는 아르헨티나(101.4%), 페루(100.4%%), 브라질(80%), 콜롬비아(52.9%), 멕시코(43.5%) 순으로 상승했음.

- 극심한 혼란을 보였던 외환시장도 2009년 들어 중남미 각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급속히 안정됨.

○ 12월 7일 현재 달러대비 통화가치(전년말 대비)는 브라질(25.7%), 칠레(2.02%), 콜롬비아(13.1%), 멕시코(8.2%), 페루(5.9%) 순으로 상승했음.

○ 같은 기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유일하게 아르헨티나에서만 페소화 가치가 하락(-10.1%)했음.

그림 1. 중남미 주요국의 주가 및 환율 변화율



자료: Bloomberg.

■ 브라질을 필두로 경기침체 탈피

- 2분기부터 브라질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전기대비 1.9%)로 돌아서며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빨리 경기침체를 탈피한 데 이어 3분기 들어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도 성장세 대열에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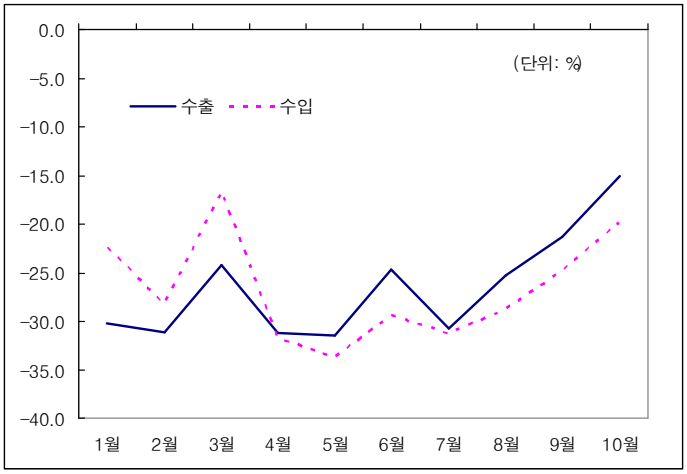
■ 수출입 하락세 둔화

- 글로벌 경기회복세와 이에 따른 1차산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중남미 수출은 7월을 기점으로 하락폭이 둔화됨.

○ 1~7월 수출 감소폭은 월평균 29.1%에 달했으나 8~10월에는 20.5% 하락에 그침.

- 중남미 각국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입도 7월 이후 하락세가 크게 둔화됨.

그림 2. 2009년 중남미 수출입 증가율 추이(전년동월대비 기준)



자료: Global Insight.

■ 기초경제여건 강화로 과거와 같은 금융위기가 재연되지는 않음.

- 건전한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운영, 해외차입 의존도 축소 등을 통해 그간 중남미 경제가 기초체력을 강화해온 결과, 과거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남미 각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로 비화되지는 않음.

■ 2009년 2%대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2009년 전체적으로 중남미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① 해외자본조달비용 상승 및 자본유입 감소, ② 1차산품 수출 감소, ③ 수출관광수입·해외송금 유입 감소 등 3중 충격의 영향으로 2%대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임.

○ 국별로는 내수기반이 비교적 탄탄한 브라질, 페루 등이 미세하나마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임.

○ 그에 반해 대부분의 중남미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임.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7%대 성장)를 겪을 전망임.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2009년 하반기 이후 금리동결 정책 기조 유지

- 브라질, 칠레, 페루, 멕시코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은 경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2009년 초부터 상반기까지 공격적인 금리인하정책을 추진해옴.

○ 금리인하 폭은 칠레(7.75%포인트), 베네수엘라(5.5%포인트), 페루(5.25%포인트), 브라질(5%포인트) 순으로 크게 나타남.

- 그러나 2009년 하반기 들어 중남미 각국은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더 이상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음.

표 1. 중남미 주요국의 금리인하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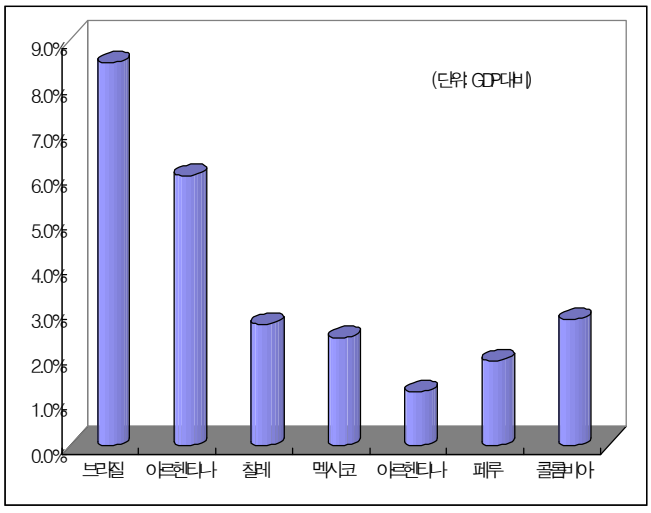
국가	금리인하 개시 시점	개시 시점의 금리	현재 금리 (11월 말)
브라질	2009.1	13.75	8.75
멕시코	2009.1	8.25	4.50
페루	2009.2	6.50	1.25
칠레	2009.1	8.25	0.5
콜롬비아	2008.12	10.0	4.5
베네수엘라	2009.4	33.5	31.5

자료: Global Insight.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로 경기침체 억제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속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을 비롯한 중남미 각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옴.

그림 3. 중남미 주요국의 2009년 경기부양 규모



자료: ECLAC.

○ 주요 경기부양책은 법인세 감면, 개인소득세 인하, 수출입 관세 인하, 사회보장세 감면 등 세제정책과 인프라 투자 및 주택건설 확대, 중소기업/농업 및 전략산업분야 지원 등 정부지출로 대별됨.

- 국별로 경기부양 규모는 브라질이 GDP 대비 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순을 기록함.

■ 국제상품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재정난 직면

-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1차산품 가격의 하락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커다란 재정난에 직면함.

○ 주요 자원부국 중에서는 베네수엘라(50.6%), 멕시코(35.4%), 볼리비아(34.5%), 에콰도르(24.7%), 칠레(17.6%) 등이 천연자원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중남미 자원부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재정수입 의존도(2008년)

	주요 국가
17% 이상	베네수엘라(50.6%), 멕시코(35.4%), 볼리비아(34.5%), 에콰도르(24.7%), 파나마(21.8%), 칠레(17.6%)
1% 이상~ 16% 이하	페루(15.7%), 콜롬비아(13.4%), 아르헨티나(8.6%)
1% 미만	브라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과테말라

자료: ECLAC.

다. 2010년 경제 전망

■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경제성장세로 전환

- 세계경제의 회복세 진입, 1차산품의 국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수출 확대, 지속적인 소비확대 등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는 2009년 경기침체를 탈피,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임.

-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중남미 각국의 재정수지 악화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크지 않아 경제성장 폭은 2%대에 머물 전망임.

■ 지역별로 경제성장 격차 뚜렷

- 지역별로는 중국경제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대중 수출의 존도가 비교적 높은 남미국가들의 성장세가 대미 경제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중미 경제의 성장세를 앞지를 전망임.

- 2009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한 멕시코 경제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중남미 평균 성장률인 3%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임.

■ 남미국가들 간에도 성장세 격차 현저

- 남미국가 중에서는 경제기초여건이 탄탄한 페루, 브라질, 칠레 경제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 페루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그간 주춤했던 광산부문에 대한 투자 급증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임.

○ 칠레 경제는 주종 수출품인 국제 광물가격의 인상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2009년 침체에서 벗어나 4%대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임.

- 그에 반해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사회적인 혼란이 예상되는 아르헨티나와, 정부의 지나친 경제개입 정책으로 민간투자가 중단된 베네수엘라 경제는 회복세가 제한적이거나 지연될 전망임.

○ 아르헨티나 경제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브라질과 중국의 경기회복,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임. 그러나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한계로 경제성장(1.5~2.0%) 폭은 제한적일 전망임.

○ 베네수엘라 경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축소로 대부분의 중남미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인 데 반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세에 머물 전망임.

표 3. 중남미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8년	전망치	
			2009년	2010년
Global Insight (09.11)	아르헨티나	6.8	-0.7	2.0
	브라질	5.1	0.2	4.3
	칠레	3.2	-1.6	4.5
	콜롬비아	2.4	-0.3	2.1
	멕시코	1.4	-7.5	3.3
	페루	9.1	0.7	6.1
	베네수엘라	4.8	-1.8	-0.8
	중남미	3.9	-2.1	3.1
IMF(09.10)	중남미	-	-2.5	2.9
EIU(09.11)	중남미	-	-2.6	2.7
IIF(09.10)	중남미	-	-2.4	3.9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 및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 전망

- 중남미 경기침체로 크게 감소했던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는 중남미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신속히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임.

○ 2009년 1~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 하락했음. 그러나 2009년 8월을 기점으로 수출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조만간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국별로 대중남미 수출은 베네수엘라(-56%), 칠레(-36.7%), 에콰도르(-32.8%), 콜롬비아(-28.4%), 멕시코(-27.95%) 순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함.

- 또한 세계 금융위기와 중남미 현지 경기침체로 중단되거나 지체되었던 우리기업들의 중남미 투자 진출도 신속히 재개될 전망임.

○ 2009년 1~9월 투자는 7억 달러로 2008년 투자액 16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연구진

권기수 미주팀 부연구위원

(kskwon@kiep.go.kr, Tel: 3460-1081)

3. 중동

가. 경제 동향

■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

-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 급감과 자산가치 하락,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

- 2003년 이후 고유가시기 동안 중동경제는 연간 5~7%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직격탄을 맞음.

○ 세계적 고유가시기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막대한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중동경제는 2008년 상반기까지 경기활황세를 지속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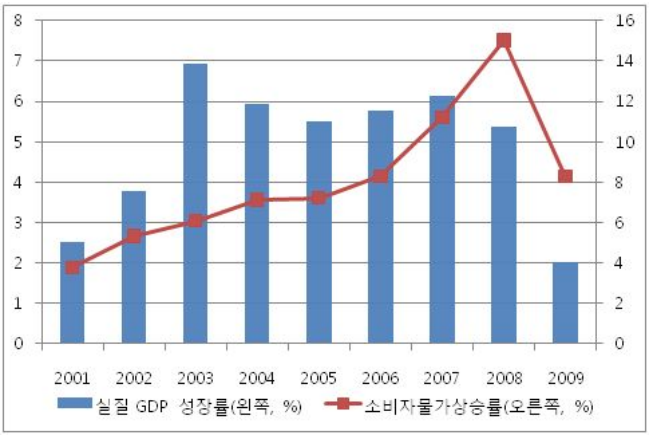
○ 하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기는 급속한 둔화세로 반전됨.

- IMF는 2009년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3.4% 포인트 하락한 2.0%로 예상함.

○ 특히 중동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7]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2008년 6.4%에서 2009년 0.7%로 큰 폭으로 하락함.

○ GCC 산유국의 에너지부문 성장률은 -5.2%라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그림 1. 중동지역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2009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2009.10).

그림 2. 중동 GCC 6개국 평균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2009.12.7).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지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부동산대출 부실화가 주요 복병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중동경제는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금융기관간 신용경색이 확산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 바 있음.

○ 중동 신용경색의 주요 진원지는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으로, 투자자본 이탈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역내 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됨.

-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로 CDS(credit default swap) 가산금리와 은행간금리(inter-bank rate) 등 금융지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음.

○ UAE의 경우 2009년 10월 현재 은행권 대출규모는 2008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예대율(loan-deposit ratio)은 소폭 하락함에 따라 은행 건전성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임.

- 그러나 최근 현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익스포저(exposure)가 확대되면서 중동 경제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2009년 11월 발생한 UAE 두바이 국영기업 Dubai World의 채무상환(약 45억 달러) 유예 요청은 대규모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단적인 예임.

○ 이번 두바이 사태가 주변 산유국들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부실채권 발생이 지속될 경우 현지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투자심리 위축으로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7)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협의체로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를 보유.

그림 3. UAE 은행 예금 및 대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AE 중앙은행.

표 1. UAE 은행업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추이

(단위: 십억 달러)

2007.12	2008.6	2008.12	2009.3	2009.6	2009.9	2009.10
5.7	6.0	5.4	5.9	6.5	7.6	7.9

자료: UAE 중앙은행.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경기 연착륙을 위한 금융조치 및 재정 확대 등 양적완화 기조 유지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동 산유국 정부들은 국제적 공조체제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공급, 예금 지급보증 등 금융시장 안정화조치를 시행·유지하고 있음.

○ 사우디는 정책금리를 5.5%(2008년 10월)에서 2.0%(2009년 1월)로 인하하고 은행권 긴급유동성지원(30억 달러), 은행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함.

○ UAE와 쿠웨이트 역시 정책금리 인하와 은행권 유동성지원, 고객예금 지급보증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주요 산유국 정부는 2010년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중동지역 경제대국인 사우디는 2009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16% 증액하며 재정확대 정책을 취한 바 있는데, 2010년 정부지출 역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대비 20% 가량 증액한 바 있는 UAE 내각은 2010년 연방정부예산을 2009년 대비 3.4% 확대하기로 함.

○ 쿠웨이트의 경우 2010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유가를 전년대비 23% 상승한 배럴당 43달러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쿠웨이트의 정부지출 역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GCC 산유국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 및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정수지가 균형재정 내지 소폭의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공조하의 점진적 출구전략 시행 예상

-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를 고려한 점진적 출구전략 시행이 점쳐짐.

○ 사우디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11월 1일 "현 시점에서의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 라고 발언함(Bloomberg).

○ 사우디 당국은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과 양적완화 조치 등의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임.

- 향후 사우디 등 산유국 정부의 출구전략 시행은 미국의 출구전략과 연동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GCC의 통화동맹 및 대외개방 지속 추진 전망

- 세계경제의 보호주의 도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동 GCC 국가는 단일통화 도입 및 FTA 추진 등 시장통합 및 개방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걸프지역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GCC는 단일통화 발행을 목표로 통화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일통화 발행의 시점은 2012~13년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GCC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시장개방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 중동경제 및 한 · 중동관계 전망

■ 국제유가 반등과 오일머니 재유입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 세계경제의 안정화와 석유수요 회복으로 2010년에는 국제유가가 상당 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동의 경제성장률 역시 반등할 것임.

○ 두바이 유가는 2009년 연평균 60달러대에서 2010년에는 연평균 75~80달러대로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와 중동지역 성장률 간 관계를 고려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은 오일머니의 재유입과 민간투자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경제위기의 여파로 그동안 보류되었던 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개발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중동경제는 4% 내외의 성장률 회복이 예상됨.

- 세계경제 안정화와 국제유가의 반등을 고려할 때 2010년도 중동경제는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2010년도 중동지역 경제성장률을 2009년 대비 2.2% 포인트 상승한 4.2%로 전망함.

○ 특히 GCC 산유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2009년 0.7%에서 2010년도에는 5.2%로 큰 폭의 상승이 전망됨.

○ 그러나 2010년 세계경제가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석유 수요 부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중동경제의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중동의 2010년도 경상수지 흑자폭은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40~5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과열 시기동안 중동지역의 주요 경제현안이었던 물가상승 압력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중동지역 실질경제성장률 전망

실질GDP 성장률 (%)						물가상승률 (%)		경상수지 (GDP 대비 %)	
IMF		World Bank		Global Insight		IMF		IMF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	4.2	3.1	3.8	-0.1	3.7	8.3	6.6	2.6	7.9

자료: IMF(2009.10); World Bank(2009.9); Global Insight(2009.12).

■ 한국의 대중동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임.

- 중동지역의 오일머니 재유입으로 우리의 대중동 수출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로 대중동 무역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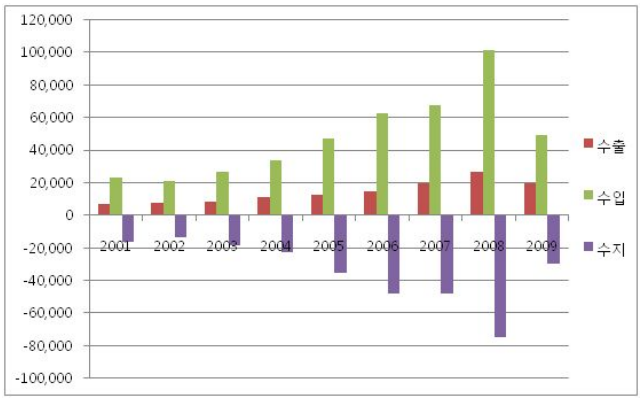
- 2009년 10월 말 기준 대중동 수입액은 493억 달러(전체 수입의 18.9%)로 전년동기대비 45%가량 급감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수입액이 약 150~200억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2009년도 대중동 수출금액(10월 말 현재)은 19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중동시장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증가가 예상됨.

- 중동은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의 65%(2009년 10월 말 현재 약 185억 달러)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2010년에는 현지 프로젝트 발주 재개로 수주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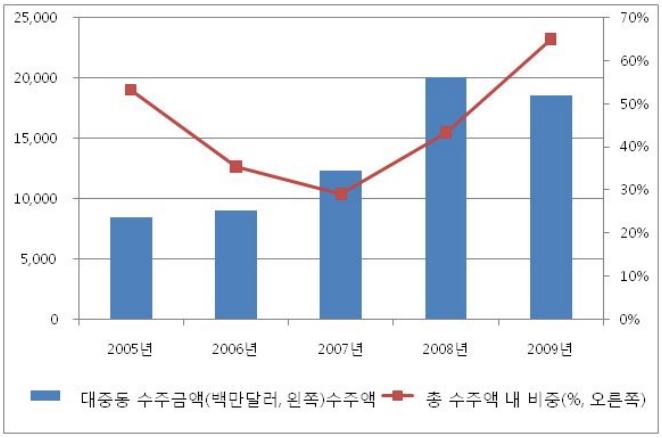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대중동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09년 대중동 수출입금액은 10월 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4. 대중동 플랜트 수주금액 및 비중 추이



주: 2009년 대중동 플랜트 수주금액은 10월 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한국플랜트협회.

연구진(아 · 중동팀)

박철형 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Tel: 1092)
윤서영 연구원 (syyun@kiep.go.kr, Tel: 1040)

4. 중앙아시아

가. 경제 동향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전년에 이어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에너지관련 수출 증가[8]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증가로 전년에 이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보임.

○ 단, 수출부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전반기에 낮은 유가로 수출이 부진했던 카자흐스탄은 200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임.

○ 최근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으나 부실화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내 경기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투자 유입, 중국의 40억 달러 차관 제공으로 경제성장은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4월 가스수송관 폭발사고로 가스수출이 중단된 이래 러시아와 가스수출가격 및 수출량 조정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 극빈국인 키르기스 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세계 경기하락으로 인한 국내경제 악화가 IMF 등의 경제원조로 진정되면서 1~2%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전망임.

나. 정책 현안 및 방향

■ 세계 경제위기 파급 억제 및 국내 경제 활성화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임.

- 카자흐스탄은 금리인하, 자금지원,[9] 금융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8) 전년에 비해 약 2.3배 증가한 러시아에 대한 1/4분기 가스 수출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됨.

9) 금융부문 안정화 기금 40억 달러, 부실자산처리 기금 60억 달러 등.

표 1. 2009년 실질 GDP 증가율 전망

(단위: %)

	2008년	2009년		
		IMF	GI	EIU
카자흐스탄	3.2	-2.0	-1.2	-1.8
키르기스 공화국	7.6	1.5	-0.5	2.0
타지키스탄	7.9	2.0	2.8	1.0
투르크메니스탄	10.5	4.0	5.9	-6.0
우즈베키스탄	9.0	7.0	9.3	7.8

자료: IMF(2009.10),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EIU(2009.9~12), *Country Report*,
Global Insight(GI), *World Overview*, 2009년 3분기.

○ 최대 은행인 BTA의 채무조정협상이 금융권 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으로 카자흐 정부는 민간채무에 대해 정부보증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임.

- 우즈베키스탄은 석유·가스 생산 및 인프라 투자 부문에서 민영화 프로그램 운영, 해외투자자 인센티브 제공, 투자 간소화 조치 등을 통해 해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중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최대 현안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12월 대중국 가스수출관 개통과 이란에 대한 가스수출 증대, 러시아를 우회하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음.

- 키르기스 공화국과 타지키스탄은 IMF가 요구하는 경제안정화 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키르기스 공화국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 러시아 등과의 균형외교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려 하고 있음.

다. 2010년 경제전망

■ 2010년에는 전반적으로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은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나 2010년에도 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2010년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이란으로의 가스수출 증대가 예상되며 러시아와의 가

격협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서방세계와의 관계 강화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도 전망됨.

- 우즈베키스탄은 인프라 투자 확대, 세계 경기회복과 연동한 가스 및 면화 수출 확대가 2010년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 해외이주노동자 송금과 1~2개의 수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 공화국 경제는 3%대의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전반에 걸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이 국가들의 2010년 경제회복 조짐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키르기스의 주요수출품인 금과 타지키스탄의 주요수출품인 면화, 알루미늄 등의 가격인상으로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표 2. 2010년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전망

		실질GDP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GDP대비%)
카자흐스탄	IMF	2.0	6.6	3.9
	GI	1.9	6.6	−1.3
	EIU	2.4	6.5	−1.7
키르기스 공화국	IMF	3.0	6.7	−12.4
	GI	0.1	3.5	4.3
	EIU	3.5	9.3	−1.7
타지키스탄	IMF	3.0	10.9	−13.3
	GI	3.2	6.4	−4.1
	EIU	3.0	7.9	−10.4
투르크 메니스탄	IMF	15.3	3.5	29.1
	GI	5.0	8.2	12.7
	EIU	11.0	12.0	30.3
우즈베키 스탄	IMF	7.0	9.5	6.7
	GI	8.0	8.1	10.8
	EIU	8.1	9.2	13.5

자료: IMF(2009.10),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EIU(2009.9~12), *Country Report*,
Global Insight(GI), *World Overview*, 2009년 3분기.

■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교역 및 투자는 다시 확대될 전망

- 2009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전년동기의 약 81%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한국의 수출 감소(−2%)보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64%)가 주원인임. 특히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우라늄)과 카자흐스탄(광물자원)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량은 정부의 교역 확대 노력에 힘입어 수출입 부문 모두에서 크게 확대되었음.

- 2010년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한국의 경제사정이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역량은 다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중앙아시아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임.

○ 또한 주요 교역상대국인 우즈베키스탄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투르크메니스탄이 신규 교역상대국으로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표 3. 2008-2009년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합계 금액	키르기스 공화국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우즈베키 스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008	1,698	16	32.4	347	−36.3	38	72.5	22	224.9	1,122	50
	2009	1,385	86	−42.1	251	−17.6	20	−36.7	60	264.7	967	5.4
수입	2008	619	2	92.4	350	36.5	3	−91.6	0.2	−74.5	262	153.1
	2009	193	0.6	−76.2	138	−56.4	18	484.8	0.7	353.5	36	−83.5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9년 대중앙아시아 투자는 2008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세계경기 회복 및 유가상승,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등으로 2010년에는 대중앙아시아 투자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표 4.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 공화국	타지키스탄
2008	65,168	192,258	33,179	862
2009	26,696	101,021	6,412	135

주: 2009년 투자현황은 9월 말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진

주진홍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joojh@kiep.go.kr, Tel: 3460-1053)
이시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shylee@kiep.go.kr, Tel: 3460-1234)

5. 아프리카

가. 경제 동향

■ 경제성장세 둔화

- 2000년대 들어 5~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던 아프리카 경제가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원자재가격 하락 및 수출 위축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1.7%)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경제는 유럽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원자재 수입수요에 따라 그 향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산유국의 경제침체 심화

- 2009년에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적도기니 등 산유국들이 원유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 외국인투자 감소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침체가 두드러졌음.

○ 고유가 이후 연간 7~8%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던 아프리카 산유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2.2%에 머물 것으로 보임.

○ 2008년에 GDP 대비 14.9%의 흑자를 기록했던 산유국들의 경상수지는 2009년에는 GDP 대비 0.9% 수준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함.

- 남아공,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 등의 비산유국들도 정정불안, 물가상승,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음.

■ 물가불안 여전

- 원유 및 원자재 가격하락, 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09년 물가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한 9.0%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나이지리아(12.0%), 콩고민주공화국(39.4%), 가나(18.5%)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2009년 물가상승률은 국내 정치 불안 및 정부투자 확대로 크게 상승하고 있음.

표 1.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상수지/GDP (비중, %)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아프리카	6.3	5.2	1.7	6.0	10.3	9.0	2.9	2.5	-3.1
산유국	7.8	6.1	2.2	5.5	9.4	9.4	14.8	14.9	0.9
비산유국	5.3	4.7	1.4	6.3	10.8	8.9	-5.2	-7.1	-5.7
남아공	5.1	3.1	-2.2	7.1	11.5	7.2	-7.3	-7.4	-5.0
나이지리아	7.0	6.0	2.9	5.4	11.6	12.0	18.8	20.4	6.9
콩고민주 공화국	6.3	6.2	2.7	16.7	18.0	39.2	-1.5	-15.3	-14.6
케냐	7.1	1.7	2.5	9.8	13.1	12.0	-4.1	-6.8	-8.1

주: 2009년은 예측치임.
자료: IMF(2009.10),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Insight(2009.11) 각국 경제지표.

나. 정책 현황 및 방향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내수 증가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왔음.

○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남아공은 2009/2010년 재정지출 규모를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된 8,410억 랜드(GDP의 약 34%)로 확정함. 특히 국내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투자가 증가함.

○ 나이지리아 정부는 2009년에 적자예산(GDP 대비 -3.0%)을 편성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였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신용경색, 내수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09년 아프리카의 재정수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5.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가 계속된다면 2010년 재정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금리인하 정책은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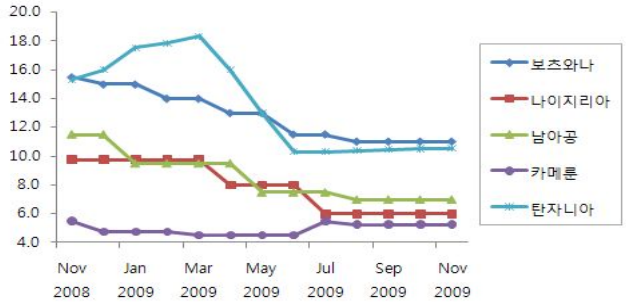
-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동성 공급 및 내수 촉진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했으나,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향후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남아공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현재 전력요금 인상(25%),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 등의 물가상승압박을 받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남아공의 현재 정책금리는 2008년 12월 12% 수준에서 대폭 하락한 7%임.

– 나이지리아는 지난 2009년 4월과 7월에 각각 정책금리를 2%p씩 인하, 현재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9년 하반기부터 원유가격 상승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없음.

그림 1. 아프리카 주요국의 정책금리 동향



자료: Global Insight Web Database(2009); 각국 중앙은행.

다. 2010년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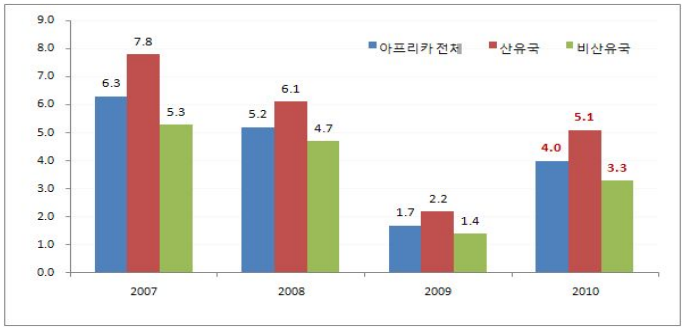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회복 전망

– 2010년 아프리카 경제는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수출호조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IMF는 2010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을 2009년보다 크게 높은 4.0%로 전망함.

○ 특히 원유가격 상승 및 수출 증대로 인해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높은 경제성장률(5.1%)을 기록하며 아프리카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



주: 2009년과 2010년은 예측치.
자료: IMF(2009.10), World Economic Outlook.

■ 소비자물가 안정 전망

–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량 등 생필품 가격의 안정으로 2009년(9.0%)에 비해 낮은 수준인 7.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성장세 회복

– 아프리카 전체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의 경제회복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에는 아프리카 총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 등 일차산품의 가격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아프리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대 초반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데 2010년에는 그 비중이 3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로 엇갈린 경제성장 명암

– 남아공, 가봉, 카메룬 등은 3% 이하의 저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앙골라, 콩고공화국, 짐바브웨 등은 6%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됨.

표 2. 2010년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명암

	해당 국가
저성장국 (3% 이하)	적도기니(–2.8)·가봉(2.6)·남아공(1.7%)·말라위(0.9)·코모로(1.5)·토고(2.6)·카메룬(2.7)
중간성장국 (3~5%대)	차드(4.6)·나이지리아(5.0)·보츠와나(4.1)·레소토(3.1)·가나(5.0)·케냐(4.0)·모잠비크(5.2%)·콩고민주공화국(5.4)·잠비아(5.0)·르완다(5.2)·니제르(5.2)
고성장국 (6% 이상)	앙골라(9.3)·콩고공화국(12.2)·에티오피아(7.0)·우간다(6.0)·라이베리아(6.3)·짐바브웨(6.0)

자료: 상동.

■ 남아공, 월드컵 개최에도 불구하고 저성장(1.7%) 전망

– 남아공은 월드컵 개최에도 불구하고 2010년 경제성장률이 1.7%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그 만큼 월드컵 특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남아공 정부가 인프라 및 민생안정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를 크게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수출 감소, 물가 불안, 환율 불안 등의 악재가 산재해 있어 단기적인 경기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짐바브웨, 성장발판 마련

- 살인적인 인플레와 만성적인 경기침체 속에 빠져 있던 짐바브웨는 2009년 회복세(3.7%)로 돌아선 후 2010년에는 6.0%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짐바브웨의 경제 회복세는 미달러 도입에 따른 통화안정성 확보와 연합정부 출범 이후 정정 안정에 기인함.

○ 2009년 초 미국 달러와 남아공 랜드화가 도입되어 짐바브웨 달러 대신 통용되면서부터 통화안정성이 확보되고 물가가 정상화되었음.

※ 짐바브웨 물가상승률 변화: -72.7%(2007년) → 156%(2008년) → 9%(2009년)

○ 2009년 2월 출범한 짐바브웨 연합정부에서 무가베 대통령과 창기라이 총리는 '불협 속의 화합'을 이루며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연구진

박영호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부연구위원
(parkyh@kiep.go.kr, Tel: 3460-1231)
허윤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yshur@kiep.go.kr, Tel: 3460-1116)